황당 소문… 난 굴한 여자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11일(화요일) 제2nn호 www.metroseoul.co.kr

배가 홀~쭉해진 류현진

삼성 '지문뱅킹' vs 애플 '닥터워치'

자기작 '갤럭시S5' '아이폰6'에 상상초월 신기술 적용… 공개 앞두고 관심 집중

혁신과 혁신의 대결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투톱 삼성전자와 애플이 자기작인 '갤럭시S5'와 '아이폰6'에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레노버가 미국의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쉽앆 3위 예아커로 떠오르자 삼성과 애플은 '상상을 넘어선 신제품'을 내놓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갤럭시S5를 공개하고 4월부터 시판에 들어가는 삼성전자는 지문인식 기능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잠금화면을 해제하거나 타인이 스마트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모바일 쇼핑, 스마트폰 뱅킹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문 인식이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도 있다.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모바일 커머스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이동통신망 연결을 담당하는 통신칩을 결합하는 작업을 시도 중이다.

AP에 통신칩을 결합하면 이론적으로는 스마트폰 크기나 무게에 한결 여유가 생기고 가격도 낮출 수 있다. 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배터리 지속 시간도 길어진다.

애플은 아이폰6에 '움직이는 병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 손목시계 '아이워치'의 다양한 앱을 활용해 각종 결과와 수치를 아이폰6에 보여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혈압이나 체온을 감지해 몸의 변화를 곧바로 알려주고 웨어러블 체중관리 기기 '핏비트' 처럼 걷거나 달리기를 자극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제품에 대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새로운 분야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품에 대해 워낙 함구해왔던 그의 성향을 감안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기대가 크고 출시가 임박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애플 측은 최근 미국 FDA 관계자들과 만나 모바일 건강관리 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아이폰6의 또 다른 비밀 병기도 카메라 기능이 꼽힌다.

그간 스마트폰 카메라는 화소·화질 경쟁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아예 디지털 카메라를 잠작하는 수준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최근 고성능 카메라 앱 개발사 스냅피렌스를 인수한 게 배경이다.

이 회사가 만든 고화질 카메라 앱 '스냅파캅'은 미러리스 카메라와 같은 속도인 초당 20~30장의 사진을 찍게 해준다. 즉 아이폰을 사면 미러리스 카메라가 공짜로 들어오는 셈이다.

국내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몰래그신 스마트폰을 혁신해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 IT기업의 추격 속도가 빨라져 그 어느 때보다 새로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오리고기 판매 무려 75% 줄었다

'AI 쇼크' 탓… 정부, 대형마트 등과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닭과 오리 고기의 소비가 60~70%가량 급감하자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AI 발생으로 위축된 닭과 오리 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소비 촉진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필 가운데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식당에서 닭·오리고기 시식행사를 갖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농식품부가 전국 하나로마트의 가금육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9일 기준으로 신선 닭고기의 하루 판매액은 전월보다 59.4% 감소했다. 오리고기 판매액도 75%가량 급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재 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H5N8형 고병원성 AI의 특징과 현황 등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홍보키로 했다.

또 정부 부처와 기업,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시식회 등의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들은 독려해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통 마진을 없앤 판매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혜인기자 p.nnnn

안현수 1500m '값진 동'… 러시아 귀화 뒤 첫 메달

10일 오후(현지시각)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트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러시아 국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관련기사 22·23면> /뉴시스

노메달 한국 3회 연속 톱10 '비상'

동계 올림픽 3회 연속 톱 10을 노리는 한국의 메달 레이스가 순탄치 않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애국가를 울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모태범(25·대한항공)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에서 1·2차 합계 69초69로 4위에 그쳤다.

4년 전 밴쿠버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올시즌 월드컵 1~4차 대회 8번의 레이스에서 총 527점을 얻어 500m 부문에서는 굳건히 정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 성적은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에는 이한빈(26·성남시청), 신다운(21·서울시청), 박세영(21·단국대) 등 한국 선수가 3명이나 출전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한빈만이 결승에 올랐고 2분16초466으로 7명 중 6위에 그쳤다.

앞서 8일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경기에서는 밴쿠버 대회 은메달리스트 이승훈(26·대한항공)이 출전했지만 12위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한국은 초반의 부진을 씻고 11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세계 최강 이상화(25·서울시청)에 첫 금메달을 기대한다. /유순호기자 suno@

남 일 같지 않은 '신흥국 위기'

기자 수첩
김 민 지
<경제산업부 기자>

신흥국 금융시장이 난리라는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하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신흥국에서는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자금 유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지난달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총 122억 달러(약 13조784억원)가 빠져나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유출 규모도 급증세다. 지난달 초에는 13억1800만 달러가 유출됐지만 마지막 주에는 63억 달러가 신흥국 시장에서 이탈했다. 현지 언론은 아르헨티나가 환율 방어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른바 '취약 신흥국'은 인도,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한 데다 물가상승 부담이 커 자금 유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에서 신흥국 비중이 41%에 달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에 취약한 신흥국들이 쓰러지면 국내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도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확대될 경우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등 금융 불안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선제적 대응에는 미흡한 모습이다. 외환 보유액이 많고,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지만 국제사회에선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정부의 냉철한 시각과 판단이 절실한 때다.

비영리민간단체 현금거래 금지…체크카드 의무화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이 전자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등 현금 취급이 불가능해진다.

10일 안전행정부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 금융기관·국세청과 연계해 사업비 입출금 내역과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등 회계관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금 거래로 인한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는 모두 회계 부서를 거치도록 업무 절차를 재정비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간이세금영수증 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금 취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조현정기자

뉴스 & 뉴스

'이산상봉' 금강산에도 폭설…우리 제설차량 투입

● 오는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금강산에 폭설이 내리자 우리 제설차량이 투입돼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금강산 지역에도 눈이 1m 이상 내린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제설차량 3대가 들어가 며칠 전부터 제설 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제설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힐 전 차관보에 쏠린 눈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1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 국회 포럼'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그는 "일본 정치인들은 국내 문제에 너무 골두하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케리 미 국무장관 13~14일 방한…북핵 등 논의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3~14일 한국을 방문한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케리 장관의 방한은 10개월여 만으로, 13~18일 진행되는 아시아 중동 지역 순방의 일환이다.

그는 방한 기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향, 북핵·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조 개혁 저항 용납 않겠다"…방만경영·모럴해저드 조목조목 질타

대통령이 보낸 '옐로카드'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강도 높은 질타를 가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한 기관도 있다"며 방만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원이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또 하루 이자비용이 200억원이 넘고 이 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었다"며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방만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 노조의 최근 반발 기류에 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라며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노사 간 '이면 합의'가 과도한 복지 혜택의 원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공공기관장들에게도 경고장을 내밀었다.

또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내용을 인용해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한 보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은 일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상은 국민에게 공개해 이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이산가족이 상봉 안내문 발송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 신청 접수처에서 직원들이 상봉 일정 등을 담은 안내문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정보공개 최소화…언론 브리핑도 제한

여야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국정보고에 대해서는 대언론 브리핑을 제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해 불법적 기밀 누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10일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해 여야 간사 간에 일정 부분 합의하고 국회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해 우선 보안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정원이 12명인 정보위원을 1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 열람이나 대면 보고도 정보위 회의실이나 보안시설을 갖춘 자료열람실 등으로 제한하고, 전화를 통한 보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정원 보고나 자료 열람을 통해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받으면 보고한 직원을 포함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원장은 국회의원이 기밀 유출이나 지정 장소 외에서 보고 또는 자료 열람을 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고발 의무'를 명시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처리한다. /조한진기자 hjn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24일 동시에 시작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24일부터 시작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휘소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은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된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한미 연합훈련 사실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릴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 가운데 24~25일 이틀이 훈련 기간과 겹쳐 이산가족 상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키리졸브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은 5200여 명으로 지난해 3500여 명에 비해 1700명 정도 늘었다. 반면 독수리 연습에 참여하는 미군은 7500명으로 해년 해외 증원 병력 위주로 1만여 명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병력 규모가 축소됐다. /김민준기자

지붕 위로 올라간 경찰 10일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80여 명이 닷새간 1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원 동해지역에서 도로와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강원 동해안 '설상가상'

미시령·진부령 최고 122cm '눈 폭탄'에 또 대설경보 … 오늘 5cm 더 쌓일듯

강원 동해안 지역에 지난 6일부터 닷새 동안 1m가 넘는 눈 폭탄이 쏟아지면서 산간마을이 사실상 고립되고 농업 시설물이 무너져내리는 등 주민 피해가 잇따랐다.

10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까지 미시령 진부령 122cm, 강릉 104.5cm, 동해 82cm, 속초 75cm, 대관령 68cm, 평창 11cm 등의 적설을 기록했다.

지난 9일 31 무게의 눈이 한꺼번에 쏟아져 도로가 엉망이 된 강원 미시령 요금소~용대삼거리 구간은 밤샘 제설 작업으로 10일 오전 개통됐다. 삼척시 미로면~하장면을 잇는 댓재 구간과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56번 지방도 옛 영동고속도로 구간(대관령 옛길)도 월동 장구 장착 차량만 제한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7일부터 차질을 빚는 강릉과 속초, 동해, 삼척, 고성 등 6개 시·군의 30개 노선 시내버스 운행도 닷새째 단축 운행됐다.

시내버스 단축 운행으로 강릉과 고성 등 2개 시·군 산간지역 14개 마을 387여 가구 주민 1164명의 발길이 묶였다. 비닐하우스 등이 폭설로 무너지며 강원지역 농업시설물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 교육청은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초·중·고교 207곳 가운데 80%인 166개 학교에 대해 10일 임시휴교령을 내렸다.

경북지역 역시 8~9일 내린 눈으로 포항, 영양, 봉화 등 5개 시·군의 92개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 각 시·군은 고속도로와 국·지방도 등에 1380여 명의 제설 인력과 85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 대부분은 대설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기상청은 곳에 따라 11일 오전까지 1~5cm의 눈이 더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김민준 기자 m.kim@metroseoul.co.kr

과속 카메라단속 1위는 '상도터널 북단'

지난해에만 무려 7755건
홍은램프·반포고가 뒤이어

서울 시내에서 시속 60km를 넘겨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건수가 2011년 41만6397건에서 2012년 42만2245건, 2013년 50만8837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3개의 단속카메라 중 동작구 상도터널 북단(상도터널→한강대교)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가장 많은 7755건의 속도위반 차량이 단속됐다.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에서 성산대교로 가는 길목에 있는 홍은램프(6615건), 강남성모병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가는 반포대교 고가차도(6358건), 천호대교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가는 올림픽대로 광진구 용성공원 앞 지점(5463건)도 적발이 많았다.

남부순환로 대치3동 대한도시가스 앞(잠실역→학여울역)과 마포구 성산로 사천고가 종점(연희IC→성산2교), 한강대로 갈월동 앤조이골프 앞(서울역→삼각지), 남부순환로 방배2동 서울메트로 앞(낙성대→예술의전당) 등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도 매년 적발 건수가 톱 10에 드는 지점이다.

/조현정 기자 [illegible]

'막말판사' '향응검사' 변호사 개업 논란

이른바 '막말 판사'와 '향응 검사'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판·검사들이 변호사 단계에서 잇따라 등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2년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등의 막말로 견책 처분을 받았던 유모(46)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입회 승인을 받아들였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유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중이다"며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등록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서울변회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유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진다.

또 2010년 사건 당사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지난해 6월 법무부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던 강모(37) 전 광주지검 검사는 지난주 전남 순천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최근 강 전 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심사에서 표결 끝에 등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혜 기자 [illegible]

다산콜 성희롱 전화 곧바로 고소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성희롱, 폭언, 욕설, 협박 등 악성 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10일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과 관련해 성희롱 관련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욕설 또는 협박하는 민원인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 3차례 이상이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성희롱 또는 폭언을 포함한 악성 민원전화가 걸려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토록 하고 통화를 끊은 뒤 민원전담반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 마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김민준 기자

빙상 꿈나무들 "대~한민국"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탑동아이스링크에서 빙상 꿈나무들이 손에 태극기를 쥐고 2014 소치동계올림픽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국민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신응수,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빼돌렸나

숭례문과 광화문 부실 복구 복원공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신응수 대목장의 강릉 소재 목재소에서 문화재청이 공급한 금강송으로 의심되는 소나무 12본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09년 광화문 복원공사에 쓰인 금강송을 강원도 삼척시 준경묘와 양양 법수치 계곡에서 확보해 공사단에 보냈다. 이 목재는 당시 손질을 하기 위해 경복궁에 있는 치목장에 보내졌다.

그러나 경찰이 목재 반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목재가 신 대목장의 목재소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경찰은 이 나무들의 정확한 출처 파악을 위해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윤다혜 기자

종암동우체국 신청사 오픈

서울종암동우체국이 10일 신축 청사의 문을 열고 지역 주민을 위한 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축한 종암동우체국은 성북구 종암로 64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56.38㎡에 지상 2층 건물이다.

서울 최초의 '제로에너지우체국'으로 건물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충당할 수 있다.

차량 3대 주차 공간과 365자동화코너도 갖추고 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유교 시조 공자 사망

기원전 479년 2월 11일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가 7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공자의 이름은 구이고 공자의 자는 존칭으로 선생을 뜻한다. 공자는 최고의 덕을 인으로 보았고 인은 극기복례(克己復禮)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자 사상의 핵심인 극기복례는 '자신을 이기고 예를 따른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예는 되살려야 할 주나라의 문화·문물·사상·제도를 총체적으로 가리킨다. 공자는 초월적인 신을 거부하고 현실의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 질서를 찾았던 사상가이다. 그는 춘추전국의 혼란한 시기에 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이상정치를 꿈꾸었지만 현실의 권력자들에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딱 맞네" 서울 광진구가 10일 오진 대원고등학교에서 졸업 입학 시즌을 맞아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6·25때 북 끌려가 실종처리된 탈북자, 선산 소유권 소송 일부 승소

북한주민 상속권 첫 인정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주민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상속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은 6·25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에 끌려가 36년 전 실종 처리된 이모씨의 탈북자 딸(45)이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 소송에서 "선산 315분의 45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에는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상속 피해 소송을 낼 수 있게 돼 있는 민법 999조 1항에 따라 북한 주민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민법 999조 2항은 해당 소송을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 이내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어진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 주민에게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서울 거주인구 1000만 깨졌다

1988년 이후 25년 만에

서울의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를 뺀 거주자 수가 25년 만에 1000만 명을 밑돌았다.

1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보다 481명 줄어든 1014만3164명이며 여기에서 거주불명등록자 15만3157명을 제외하면 서울의 거주자 수는 999만7명이다. 이처럼 서울의 거주자 수가 1000만 명 이하로 내려간 건 1988년 이후 25년 만이다.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1992년 1093만5230명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경기도 인구는 증가 추세다. 1월 말 현재 경기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1224만5960명으로 서울시보다 210만2796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인구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서울시와의 격차를 200만 명 이상으로 늘렸다. 경기도 인구는 2003년 말 1020만6851명으로 1000만 명을 처음 돌파하면서 서울시 인구를 넘어서고 나서 계속 늘어 서울시와 격차를 벌려왔다.

거주불명 등록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한 뒤 실제로 그곳에 살지 않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이탈한 걸 일컫는다. /김현준기자

정치판 뺨치는 열기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초등학교에서 방학을 앞두고 전교 학생회장 선거운동이 열렸다. 귀여운 3명의 후보자들이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각자 자신의 공약을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와 안전보건협력 협정

안전보건공단은 7일 백헌기 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아시아 지역 안전보건 협력 강화를 위해 미얀마를 방문해 미얀마 노동고용사회보장부 우민아웅 장관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공단은 앞으로 미얀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추진과 안전보건 교육훈련, 기술 정보 전문가 교류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백 이사장은 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무지 한다이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과 기존 기술협력 협정을 연장하고 2017년까지 안전보건을 지원키로 했다.

토종닭 2만마리 '눈물의 방사'

AI에 사료값 못 구한 양계농 "먹이 찾아 먹었으면…"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토종닭을 출하하지 못한 한 양계농이 사료값이 없다며 토종닭 2만여 마리를 농장 밖에 풀어놓았다.

10일 전북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김제시 죽산면에서 김모씨는 키우던 닭 2만여 마리를 풀어놓았고 400~500마리의 닭이 양계장 밖으로 나갔다.

김씨는 "사료값을 지급하지 못해 이날부터 사료회사에서 사료 공급을 중단했다"면서 "닭은 죽게 할 수 없어 알아서 먹이를 구하라고 닭을 풀어놓았다"고 말했다.

토종닭의 경우 보통 60~70일 사육한 뒤 출하하는데 김씨의 농장에는 100일 이상 된 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I 여파로 출하가 늦어져 닭이 성체로 자라 하루 사료값이 300만~400만원 정도 든다"면서 "더는 감당이 어렵고 폐사를 뭍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사료회사 직원 등이 이날 오후 농가 주변에서 김씨가 풀어놓은 닭을 수습했다. /김대혁기자 kdh@

'1만원' 때문에 부부싸움 45일된 아들 먼저 숨지게

전남 나주경찰서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생후 45일 아들을 먼저 숨지게 한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40)의 품에서 모유를 먹고 있는 아들을 벽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섯째이자 생후 45일 된 A씨의 아들은 벽에 심장과 폐 등을 부딪혀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가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던 중 돈 1만원이 맞지 않자 "씀씀이가 헤프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혜기자

중구 호텔 일자리 600개 제공

서울시 중구가 올해 호텔 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600개의 호텔 일자리를 제공한다.

구는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민간 일자리(2796명) ▲맞춤형 교육 등 통한 장기적 일자리(830명)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3910명) 등 3개 분야 70개 사업에서 7536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소상공인 융자신청 접수

서울시 용산구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용산구에 사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각각 1억5000만원, 3000만원이 한도다. 이번 상반기 신청은 3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도봉영재교육원 3회 졸업식

덕성여자대학교는 8일 오전 11시 약학관 아트홀에서 도봉영재교육원 제3회 졸업식을 가졌다.

도봉구의 재정 지원과 덕성여대의 교육 인프라 및 전문 인력이 결합돼 진행되는 도봉구의 '학·관 협력사업'으로 해마다 3월 수학 과학 반 정규과정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업은 중학생 대상이나 초등학교 6학년생도 조기 선발 가능하다.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Brazil

metro Canada

몬트리올 시청 광장 무지개 깃발 왜?

소치올림픽 기간 동안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캐나다 몬트리올 시청 광장에 게양된다. 몬트리올 시장 드니 코데르는 '러시아의 동성애법에 반대하는 뜻으로 올림픽 기간 동안 무지개 깃발을 시청 앞에 게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지개 깃발은 지난 7일부터 시청 앞에 등장했으며 몬트리올 내 올림픽 경기장 깃대에도 무지개 깃발이 올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일부터 러시아의 동성애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metro Ecuador

퉁구라우아 화산 또 폭발 '불안불안'

지난 1일(현지시간) 대규모 폭발로 에콰도르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퉁구라우아 화산(5023m)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에콰도르 국립과학회교 지구물리학연구소(IG)는 6일 퉁구라우아 화산에서 약한 폭발이 35차 발생, 가스 및 화산재 방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퉁구라우아 화산 간 한 폭발음과 함께 분화구 위로 3㎞ 높이의 연기 기둥을 만들어냈다. 화산에서 북쪽으로 180㎞ 떨어진 수도 키토에서도 폭발과 함께 분출된 화산재가 관측됐다.

metro HongKong

'8'은 800위안 '9'는 900위안

몸에 가격표 붙여 성매매

'남성의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 광둥성 둥관시의 불법 성매매 실태가 또 도마에 올랐다.

10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최근 둥관 내 상당수 호텔들은 무대 위에 여성을 세워두고 고객이 여성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제공하고 있다.

무대에 오른 여성들의 몸에는 숫자가 붙어있다. 이 숫자는 해당 여성의 가격이다. 8은 800위안(약 14만원), 9는 900위안(약 16만원)이다. 고객이 여성을 선택한 후 객실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객은 불만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한 호텔 직원은 "우리 호텔은 숙박업소가 아니라 성매매 장소일 뿐"이라고 밝혔다.

둥관에서는 유흥업소는 물론 도시의 '얼굴'로 불리는 4성급, 5성급 호텔에서도 버젓이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

타이즈(太子)호텔 사우나 센터에서는 스트립쇼가 공공연히 열린다. 신스제(新世界)호텔은 객실에서 포르노 동영상을 방영하고, 고객들의 침대 머리맡에는 40여 가지 성매매 서비스가 적힌 리스트를 놓아둔다.

시내 곳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느슨한 단속 때문에 많은 타지 사람들이 성매매를 위해 둥관을 찾는다. 둥관이 남성 천국이자 성매매 천국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고위 공무원들이 둥관의 성매매를 방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역 보호주의를 벗고 관련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둥관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화·조선미 기자

2전3기! 브라질판 '쿨러닝'

브라질 봅슬레이팀 동계올림픽 세 번째 출전 · 2002년 27위 → 2006년 25위 → 이번엔?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 브라질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13명의 대표팀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해 화제다.

브라질은 남부 산타카타리나주의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눈이 내리지 않는 국가다. 겨울 스포츠가 생소한 브라질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라질 남자 봅슬레이 대표팀 선수 에드송 빈자라티는 "메달을 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선수만 있을 뿐 제대로 된 썰매도 스케이트 날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톱 20에 드는 것"이라며 대표팀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브라질에서 체육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자메이카 봅슬레이팀의 일화를 다룬 영화 '쿨러닝'과 같이 비슷한 크기의 썰매를 가지고 지상훈련을 해왔다. 에드송의 올림픽 참가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브라질 봅슬레이팀은 27위를, 토리노 올림픽에서는 25위를 차지했다. 브라질에서는 이번 소치올림픽에 전보다 많은 수의 선수가 참여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쿨러닝'의 주인공인 자메이카 봅슬레이팀은 썰매와 헬멧 등 장비를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우여곡절 끝에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7일 자메이카 봅슬레이팀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짐과 경기용 장비들이 도착했다"며 화물 앞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렸다.

이들은 비행기를 바꿔 타는 과정에서 화물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라진 장비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

열대기후인 자메이카는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봅슬레이팀을 선보였다. 이후 자메이카 봅슬레이팀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 참가한 뒤 12년 만에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정주· 손동완 인턴기자

market index <10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23.50 (+0.80)	518.48 (+4.02)	2.85 (-0.01)	1072.50 (-3.00)

모바일뱅킹 등록자수 3700만 돌파

스마트폰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가 37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중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은 49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284만 명(34.6%)이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은 3719만 명으로, 1332만 명(55.2%)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31.1%)가 가장 많았으며 20대(30.9%)와 40대(19.9%)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50대의 비중이 2012년 말 8.4%에서 지난해 말 10.0%로, 60대 이상도 같은 기간 2.6%에서 3.5%로 급등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비중이 2012년 말 46.2%에서 47.1%로 높아졌다. 남성은 30대(32.5%)의 비중이 제일 높은 반면 여성은 20대(33.4%) 이용자가 제일 많았다. /김선재기자

뉴스&뉴스

칠성사이다 가격도 5.3% 인상

롯데칠성음료가 10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6.5% 인상하기로 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음료수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6.3%, 펩시콜라 6.8%, 칸타타 5.3%, 게토레이는 5.2%가 오른다고 밝혔다. /뉴시스

작년 유상증자액 37% 증가

● 지난해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규모는 늘고 무상증자는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유상증자 규모는 11조2742억원으로 전년의 8조2296억원보다 37.0% 증가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 배정증자(두산건설 STX팬오션 등)와 주주우선 공모(한국가스공사) 금액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

반면 주식시장 정체, 기업실적 둔화로 지난해 무상증자 규모는 2억8470만 주로 전년 4억5380만 주에 비해 36.8% 감소했다. /김현정기자

1월 ICT수지 63억 달러 흑자

● 올해 1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3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ICT 수출이 확대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1월 ICT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68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월 ICT 수지는 63억3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이재영기자

저축銀 품는 '음지금융의 대부'

러시앤캐시 '예나래·예주저축銀 우선협상자' 이어
HK 등 2금융권 M&A시장서 대부업계 인수경쟁 예고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사이에 인수·합병(M&A) 바람이 확산될 전망이다. 러시앤캐시가 저축은행 인수 숙원을 푼 가운데 HK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오는 등 올해 2금융권은 인수 합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대량으로 매물로 나온 가운데 대형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인수에 시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앤캐시의 모기업인 아이앤피(A&P)파이낸셜과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최근 예나래·예주저축은행과 예신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동안 비교적 음지에 있던 대부업체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영업 부진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으로서도 생존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HK상호저축은행이 최근 매물로 등장해 M&A 시장을 달구고 있다. 자산 규모로 저축은행 업계 1위인 HK저축은행은 누가 인수하느냐 결과에 따라서 저축은행 업계는 물론 2금융권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 만큼 파장이 클 것이라는 게 금융계 시각이다.

HK저축은행 외 현대저축은행, SC저축은행, SC캐피탈 등도 매물로 시장에 나와있다. 또 대부업체들이 점차 영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축은행 인수를 통한 반전을 노리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2금융권의 M&A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등록 대부 업자 수는 1만223개로 6개월 사이에 472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 인하,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영세 대부업자 등을 중심으로 폐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계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으면서 영업력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인수를 최선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도 장기간에 걸친 불황과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두 업종 간의 인수 합병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저축은행의 기능을 잃어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 영업이 확대되고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모습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sjy@metroseoul.co.kr

정월대보름 부럼 대령이오~ 농협서울은 피땅콩(100g)을 1480원에, 호두(100g)를 5480원에, 오곡밥 재료(850g)를 12125원에 판매하는 등 '정월 대보름 먹거리 모음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작년 덜 거둔 국세 8조5000억

지난해 우리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가량 적은 201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에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많은 218조5000억원으로 잡아 세수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정부의 성장 목표인 3.9%를 달성해도 세수가 증가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됐던 세입예산인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4.0%) 부족했다.

이는 2012년 국세 수입 203조원보다 1조1000억원이나 부족한 수치다. 1990년 이후 세수 통계 중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로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 2조1000억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조8000억원 이후 3번째다. /유주영기자

기준금리 '신흥국 쇼크' 없이 동결 전망

13일 금통위 앞두고 전문가들 "인하·상승 상황 아냐"

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신흥국 금융 불안이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2월 금통위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이달부터 양적완화 추가 축소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신흥국 금융 불안이 가중됐지만 국내 기준금리를 움직일 만큼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신흥국 불안으로 엔화 강세와 원화 약세가 발생함에 따라 1월 금통위를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향후 신흥국 위험 요인이 더 부각될 경우 환율은 현재 수준보다 더 높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정준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회복 과정에 진입했지만 상승되지 않아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방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결 명분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됐고,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변경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인상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2015년까지 경기 정상화 국면이 이어진다는 예측이 지배적일 경우 올해 4분기에서 연말 정도에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은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문로 2가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진 편집인 김광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 752 2100
독자센터 02)721-9785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0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HAPPY SHAKE!
올 겨울이 처음처럼 부드러워집니다
흔들어 마시는
물이 좋은 소주
처음처럼
HAPPY WATER
100%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亞증시 금기어 '테이퍼링'

지난 2주 美연준 '양적완화 축소' 언급과 함께 외국인 대거 매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정책 축소에 대한 언급만 해도 아시아 증시에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신투자증권에 따르면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2주간 한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 증시에서 외국인은 64억9000만 달러, 한화로 약 7조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처음 밝힌 지난해 6월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신흥국 시장은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크게 출렁였다. 2013년 6월 한 달간 아시아 7개국에서 이탈한 외국인 자금이 143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 2주간 인도네시아만 유일하게 외국인 순매수를 보이고 나머지 6개국은 모두 순매도세가 나타났다.

한국과 대만 증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순유출세가 거셌다.

지난 한 주 아시아 7개국에서 외국인은 40억 달러의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이중 대만 22억5000만 달러와 한국 11억5000만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전 주 대만 5억8000만 달러, 한국 7억7000만 달러의 외인 이탈세를 고려하면 특히 대만 증시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대만 증시는 2011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최대 금액의 외인 팔자 세를 기록했다"며 "환율 안 엔화 약세와 더불어 외인 사자세가 가장 강했던 대만 증시도 신흥국 금융 불안에 동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한국은 다른 아시아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크게 출렁였다.

외인은 한국 증시에서는 조선, 건설, 철강, 자동차 등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을 빼수했다.

이 연구원은 "외인들이 기존에 많이 사들였던 경기민감주들을 판 것"이라며 "테이퍼링으로 볼 때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2~3주 후에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외인 자금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지난해의 경우 경제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다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오동석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아시아 신흥국 증시에서 외인의 자금 이탈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1인당 70만원 배상하라" 카드사 정보유출 2808명 소송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자 2808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성희(왼쪽)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시키고 있다. 피해자들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복수 피해를 포함해 1인당 70만원씩 총 38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옵션만기일 악몽' 부활?

작년 1월 당시 주가 급락 오는 13일 재현될까 긴장

코스피가 오는 13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최근 반등세가 꺾일지 모른다는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옵션 만기 때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경험 때문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옵션 만기일에는 동시호가 10분 만에 2000억원이 넘는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1940선까지 내려앉았다.

이후 코스피지수는 신흥국 금융 불안과 외국인의 순매도세 등에 저점을 낮추며 이달 4일 1880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후 9~10일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며 1920선을 회복했으나 13일 만기일을 앞두고 지수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1월 만기일의 경우 금융투자가 장중 선물을 매수하고 합성선물은 매도하면서 누적 후 종가에 1896억원 규모의 프로그램 순매도를 내놓은 결과"라며 "이번달에는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동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월 옵션 만기 주간 프로그램 매매는 중립적일 전망"이라며 "지난해 12월 만기 이후 배당 수익을 추구해 유입된 금융투자의 차익 잔고 청산이 일단락돼 주가 때문 흔들릴 가능성이 낮고 원·달러 환율의 주가 상승이 제한돼 외국인 비차익 거래도 중립적일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심 연구원은 "이번 만기일 방향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기일까지 선물 고평가, 합성선물 저평가 상태가 유지되고 지수 상승이 미진하다면 만기일 종가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TM영업 이르면 금주 허용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이번주 후반 텔레마케팅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며 고객정보에 대한 CEO확인은 오는 21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당국은 적법성 확인이 가능한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받은 고객정보를 점검한 이후 CEO 확약서 제출을 거쳐 금주 후반경 TM영업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고객정보 확인 과정에서 보험사가 당초 기한인 7일까지 CEO 확인을 받아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11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진기자

"하트 뿅뿅" 도자기로 사랑 전해요 1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도자기 현대점에서 팝아티스트 황스링(오른쪽 둘째)과 모델들이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다양한 하트 디자인 도자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부도 자영업자 절반 '베이비부머'

전체 자영업자수 감소 속 50대 연령은 3만 명 증가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 가운데 50대는 2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대거 창업에 나섰다가 준비 부족으로 파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고 당좌 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는 296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만 50~59세(1954~63년생) 자영업자는 141명으로 전체 47.6%를 차지했다. 이는 부도 자영업자가 71명(23.9%)인 40대나 73명(24.6%)인 60대 이상 연령층의 두 배 수준이다.

전체 부도 자영업자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부도 자영업자 중 50대의 비율이 44.0%였다가 2012년에는 47.0%로 높아졌다. 특히 내수 경기 침체로 전체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50대 자영업자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0대 자영업자 수는 17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수는 5만6000명 감소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실패는 부채 문제로 이어져 중산층이 대거 저소득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재취업할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트로 기자 mn

단통법 대안 '요금인가제' 뜰까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 "보조금 줄이기보다 통신사간 요금경쟁 유도 필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각계에서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법 소비자에게 독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 시행 시 보조금을 규제하게 되면 최대 27만원의 보조금만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오히려 단통법보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보조금 심결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2013년 1월, 2013년 4~5월, 같은 해 5~10월 SK텔레콤의 평균 보조금을 조사한 결과 35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에 비해 8만2000원 많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조 교수는 단통법 시행 시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단통법의 대안으로 제시한 요금인가제는 1996년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제한해 후발 통신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유효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무선 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인가 대상 사업자다.

조 교수는 "2001년부터 10년 이상 시장점유율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대3대2를 유지하고 있다"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 경쟁을 허용하면 모의실험 결과 평균 8.7%의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고객 유치를 위해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선 오히려 단통법 시행 시 소모적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경쟁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이익 저해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경쟁 체제를 유도, 소비자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꼭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역시 단통법 시행 시 제조사 간 경쟁 체제를 유도, 단말기 출고가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혜진기자 jjh0416@metroseoul.co.kr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법 소비자에게 독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은 소비자 이익을 외면하는 법안"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한 요금 경쟁 체제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진영 기자 son@

'지주사 한진' 만들기

순환출자 고리인 한진 분할 정석기업-한진칼 합병 유력

지난해 하반기 지주사 전환을 발표한 한진그룹이 향후 정석기업→한진→한진칼→정석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한진을 분할하고 한진칼과 정석기업을 동시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하이투자증권은 "지주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한진그룹은 순환출자 문제 해소를 위해 한진을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인적분할하고 한진의 투자 부문은 한진칼과 정석기업과 합병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현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 사업 부문과 대한항공 지분을 각각 6.9%, 6.7% 보유해 통합지주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석기업과 한진칼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 경우 한진은 통합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사가 보유한 통합지주회사와 대한항공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한진그룹이 순환출자 해소와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가시화할 것"이라며 "대주주 관점에서 보면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더라도 한진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은 지난 6일 "한진그룹의 지주사 전환 방법에 대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공시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뉴욕 패션위크에 뜬 '삼성 체험존' 삼성전자는 6일부터 13일(현지시간)까지 뉴욕 센트럴 링컨센터에서 진행되는 2014년 F/W 뉴욕 패션위크에 삼성 제넌 커넥티드 체험존을 마련해 갤럭시 노트 프로, 갤럭시 노트3, UHD TV 등을 통해 통합된 제품 경험을 제공한다. 사진은 뉴욕 패션위크의 삼성 제넌 커넥티드 체험존 방문객이 갤럭시 노트 프로로 통해 스케치를 받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직장인 10명 중 7명 "연차 다 못썼다"

'상사 눈치' 가장 큰 이유 연령 높을수록 수당 선호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지난해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459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74%가 주어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상사, 동료 등의 눈치가 보여서(47.5%, 복수 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31.4%), '다들 안 쓰는 분위기여서'(30.6%),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25.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이들에게 주어진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비율은 평균 64%로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중 선호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6.5%가 연차휴가 사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70.7%), 30대(68.4%), 40대(55.8%), 50대 이상(54.7%)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돈보다는 휴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해 연차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약 6명(56.9%)이 '모두 사용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연차 미사용이 회사 생활에 미친 영향으로는 '스트레스로 업무 능률이 떨어졌다'(52.1%, 복수 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직 및 퇴사를 고려하게 됐다'(36.5%), '애사심이 떨어졌다'(34%),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게 됐다'(26.5%) 등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박지원기자 jwlee@

'소치 화제의 영상' 스미싱 미끼 조심

김연아, 이상화, 모태범 등 소치 동계올림픽 참가 대표선수에 대한 관심을 노린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트소프트는 모바일 백신 '알약 안드로이드'를 통해 이 같은 스미싱 공격 신고가 70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스미싱은 '소치 화제의 영상 재미있네요 ㅎㅎ',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앱 다운 후 응원 시 100만 원 100% 지급' 등의 문구와 함께 단축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세지 형태로 배포되고 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의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 경기가 이날부터 시작되며 범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경기까지 다음주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스미싱 공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스트소프트 보안SW사업본부 김준섭 본부장은 "소치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애국심과 관심을 파고드는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마트폰에는 알약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백신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국명기자

KT 정보유출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급증

지난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전체 상담전화 1만6822건을 분석한 결과 'KT 사칭 보이스피싱'이 전체의 36.7%(61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은행(12.8%), 검찰(5.9%), 경찰(4.6%)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분기까지 KT 사칭 보이스피싱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았으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8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인 2012년 3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3분기에는 46.1%에 달했다. 이는 1년여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성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수법으로 경제적 손실 피해를 입히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이런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영기자

1ℓ로 111km 주행 '꿈의 차'

폭스바겐 '연비혁신 결정체' 디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카 XL1 상륙

불과 1ℓ로 100km 이상 주행하는 꿈의 차가 한국에 선보였다.

폭스바겐코리아는 10일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1ℓ로 최대 111.1km를 주행하는 1ℓ 차 XL1을 공개<사진>하고, 오는 16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XL1 로드쇼를 진행한다.

양산형 디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카 XL1은 1990년대 이후 폭스바겐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온 연비혁신의 결정체로, 1ℓ를 가지고 100km 이상의 일상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만들겠다는 폭스바겐의 1ℓ 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과감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더불어 최신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CFRP)의 모노코크 구조를 통해 최적된 경량 디자인(795kg)과 뛰어난 공기역학(Cd 0.189)을 실현했다.

여기에 48마력 2기통 TDI 엔진과 27마력 전기모터, 듀얼 클러치 방식의 7단 DSG 변속기,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성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 없이 100% 전기 모드로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1ℓ의 연료만으로 최대 111.1km를 주행할 수 있다.

XL1은 유럽 시장에서 250대 한정판으로 연내에 시판을 앞두고 있다. XL1은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서 선정한 전기차 전략 국가 13개국이 한국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에 국내에 공개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오는 16일까지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의 실제 도로를 주행하며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력을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를 기념해 2월 23일까지 폭스바겐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드림 캐처 XL1(THE DREAM CATCHER, XL1)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XL1 이미지를 선택한 뒤 현실적으로 가능한 나의 가까운 미래의 꿈을 입력한 후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면 자동 응모된다. 응모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 세계 총 200개 한정으로 제작된 XL1 미니카(20명)와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쿠폰(100명), 바이오더마 립밤세트(50명)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월 한 달간 매주 간격으로 XL1 이벤트 페이지 및 영상 공유, 전국투어 중인 XL1을 발견한 뒤 인증샷을 찍어 소개하는 깜짝 이벤트가 진행 예정이다.

폭스바겐코리아 토마스 쿨 사장은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는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닌 가까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18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폭스바겐은 이미 이에 대한 로드맵 구축을 마쳤으며, XL1은 그 포문을 장식할 모델이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세계 최고 연비의 자동차 개발을 향한 폭스바겐 엔지니어들의 꿈이 완성시킨 결과물을 직접 한국 도로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상을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교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의배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해외 직송 초콜릿 맛보세요. 10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해외 직송으로 들여온 빌라스 등 다양한 초콜릿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오는 14일까지 다양한 초콜릿 행사를 진행한다. /신세계 제공

작년 등록차 '경유>휘발유' 첫 추월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차 중 경유차의 비중이 처음으로 휘발유차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규 등록 차량 중 유종별 비중은 경유 43.5%, 휘발유 42.5%, LPG 11.4%, 하이브리드(HEV) 등 2.6%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경유차의 비중이 휘발유차의 비중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총 자동차 신규 등록은 경기 회복 지연,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한 154만3564대에 그쳤다.

휘발유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비용 부담으로 전년 대비 9.3% 감소한 65만6120대를 기록했다. 반면에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비, 높은 연비, 레저용차(RV)와 수입 경유차의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한 67만2025대가 등록됐다. /안재학기자

박수칠 때 떠난 앱

플래피 버드 '자진퇴출' 눈길

전 세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려받기 1위를 자랑하던 모바일 게임 '플래피 버드'가 갑자기 자진 퇴출하겠다고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한국시간) 미국과 한국 등 주요 국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플래피 버드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보다 앞서 9일 베트남 출신인 이 게임 개발자 응우옌 하동(29)은 트위터(@dongatory) 계정을 통해 "지금으로부터 22시간 후 '플래피 버드'를 내리겠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군요"라며 자진 퇴출 결정을 알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상적으로 게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렵다는 사용자들의 비난을 응우옌이 견디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장도 있다. 광고 매출로만 150만 달러(약 16억원) 이상을 벌어들일 정도로 성공하자 차기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퇴출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다.

/미국인기자 kmlee@

삼성전자 임원들 '스톡옵션' 붐

권 부회장 30억 차익 등 14명 평균 5억 이상 수입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과 왕통 부사장이 지난해 스톡옵션 주식을 팔아 각각 30억원과 4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재벌닷컴은 10일 지난해 삼성그룹 임원 중 14명이 스톡옵션 처분으로 세전 기준 5억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중 9명은 10억원 이상씩의 차익을 실현했다.

왕통 베이징연구소장 겸 중국 판매법인 휴대전화 영업담당 부사장은 지난해 스톡옵션을 팔아 41억90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 왕 부사장은 2000년대 초반 주당 58만300원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주식 4906주를 지난해 말 143만2000원대에 모두 팔았다.

권오현 부회장도 30억원의 스톡옵션 처분 차익을 올렸다. 권 부회장은 주당 평균 27만2700원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주식, 2500주를 지난해 11월 말 주당 147만원대에 처분했다.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 등기임원으로 올해 시행되는 개인별 보수 공개 대상이다. 근로 및 상여소득과 지난해 처분한 스톡옵션 차익(기타 소득)을 합쳐 권 부회장의 연간 보수액은 1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하 전무와 박인식 삼무도 지난해 스톡옵션 주식 처분으로 각각 21억6000만원과 21억4000만원, 중남미총괄 임원인 이상철 부사장도 14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또 정우인 전무, 조수인 사장, 정은승 부사장, 김재권 사장도 50만원대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주식을 130만~140만원대에 팔아 각각 12억7000만원, 11억1000만원, 11억원, 10억30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

김석원 구주총괄담당 부사장과 민영성 글로벌지원담당장도 각각 9억6000만원, 7억8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김지강기자 kaal@

www.imtcast.com
때론 달콤하게 -
때론 상쾌하게 -
때론 유쾌하게 -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tcast
FX
SCREEN
FOX
DRAMA cube
FASHION N
CINEf
FOXlife
channel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 N
CINEf
FX

주부 홀린 '2개의 주방'… 아파트 발상전환

분양돋보기

■ 위례 센트럴·그린파크

최근 아파트의 설계 진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주방'의 변화가 눈부시다.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 여성들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 수천 가구가 일제히 쏟아지는 택지지구 분양 단지의 경우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 같은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작년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동시에 선보인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이하 '센트럴')와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이하 '그린파크')가 성남·하남권이라는 입지적 약점을 주방 특화라는 장점으로 넘어선 좋은 예다.

◆성남·하남권 위치

위례신도시 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들어선 센트럴(A2-9블록)과 그린파크(A3-9블록)지만 각각 행정구역은 다르다.

성남권역인 센트럴은 지하 4층

대우건설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101C 타입 주방.

메인·보조 부엌으로 나눠 돋보이는 공간 활용 계약금 1000만원 2016년 1월 입주

지상 10~25층 8개 동, 전용면적 ▲94㎡ 224가구 ▲101㎡ 463가구 등 총 687가구로 구성됐다. 하남권역인 그린파크는 지하 2층, 지상 10~23층 16개 동, 전용면적 ▲101㎡ 963가구 ▲113㎡(펜트하우스) 9가구 등 전체 972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센트럴은 부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계획돼 있고, 그린파크는 성남GC 조망권이 확보된다. 이에 각각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나 조망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마지막 위례신도시 내 지역 선호도는 송파구가 가장 높고, 이곳을 중심으로 역과 상업시설이 조성되는 탓에 아직 일부 잔여 세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70% 중반대의 계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성남에 위치한 센트럴 인기가 조금 더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여자라면 갖고 싶어할 만한 주방

입지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는 방문객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이 야심차게 선보인 특화 주방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모델하우스에는 두 단지의 주력 평형인 101㎡ 4개 타입 유닛이 마련됐으며, 메인 주방 외 보조 주방이 설치된 그린파크 유닛이 주부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일반 작은방 크기와 맞먹는 보조 주방에는 별도의 싱크대와 수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간단한 음식을 만드는 일은 메인 주방에서 하고, 김장 등 손이 많이 가는 일은 보조 주방에서 하면 훨씬 깔끔하게 주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분양 도우미의 설명이다.

◆중도금 50% 이자후불제

분양가는 101㎡ 기준 5억5400만~6억92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가 1570만~1980만원 추가된다. 또 보조 주방을 선택하면 확장비가 200만원가량 비싸진다.

계약금은 10%지만 2회에 걸쳐 분납 가능하다. 먼저 1000만원을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을 한 달 이내 내면 된다. 중도금은 50%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8호선 분당선 환승역 복정역 인근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6년 1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롯데캐슬 골드파크 보자"… 300m 줄

지난 주말 서울 서남권에 조성될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를 보기 위한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롯데건설은 지난 7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롯데캐슬 골드파크'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3일간 약 5만5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금천구민은 물론 인근 광명·안양, 목동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거주민들의 방문이 주를 이뤘다.

견본주택 앞에는 오픈 첫날부터 주말까지 300m가 넘는 줄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특히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방문한 가족 방문객들이 많아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연면적 약 70만㎡ 규모로 아파트 3203가구와 오피스텔 1165실의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을 비롯해 호텔, 롯데마트, 초등학교, 관공서, 축구장 약 7배 규모(5만3433㎡)의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는 서남권 최대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다.

롯데건설 '롯데캐슬 골드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오는 12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2순위, 14일부터 3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 계약은 26~28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견본주택은 금천구 독산동 424-1번지(금천구청 인근 시흥대로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6년 11월 예정이다. 문의 02)868-1616

/박선옥기자

살아나는 버블세븐

아파트 낙찰가율 80% 돌파 35개월만에… 평촌 91% 최고

버블세븐 전 지역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0%를 돌파했다. 7개 지역 전체의 낙찰가율이 80%를 동시에 넘어서기는 2011년 2월 이후 35개월 만이다.

10일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서초·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버블세븐 소재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이 84.51%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3.91%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1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특히 7개 지역 모두가 80% 선을 넘었다.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평촌으로 91.01%를 기록했다.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의 무덤이라 불리던 용인은 85.63%로 집계돼 2009년 9월(89.04%)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1월 버블세븐 지역별 경매 낙찰가율

강남 3구도 84.78%를 기록하며 기지개를 켰다. 개별 지역별로는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85.95%, 85.67%로 평균을 상회했고, 강남구는 84.17%로 뒤따랐다. 또 분당은 81.4%의 낙찰가율로 목동(81.16%)을 근소하게 앞섰다.

입찰 경쟁률도 높았다. 1월 버블세븐 아파트 경매 입찰 경쟁률은 8.38대 1로, 2009년 7월(8.44대 1)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평촌과 용인은 각각 11.3대 1, 10.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수도권(7.65대 1)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버블세븐 지역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레이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회복 속도도 다른 지역보다 빠른 것"이라며 "다만 경쟁이 치열하다 해도 낙찰가율이 80%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입찰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건축허가 면적 11.6% 감소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11.6% 감소한 12만7024㎢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건축허가 면적을 전산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한 수치다. 동(棟) 수로는 2.4% 줄어든 22만6443동이었다.

수도권이 16.3% 감소한 5만2666㎢, 지방이 7.9% 빠진 7만4357㎢였다.

또 건축물 착공 면적은 전해보다 0.2% 감소한 10만2139㎢, 동 수는 1.4% 감소한 18만9049동이었고 준공면적은 1.5% 증가한 11억3574㎢, 동 수는 1.8% 감소한 18만6996동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허가와 착공 면적은 줄고 준공면적만 늘어난 반면, 상업용 건축물은 일제히 증가했다. /박선옥기자

건설사 지난해 해외 수상 줄이어

지난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풍성한 수상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현장의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건설업 특유의 뚝심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해외건설협회가 10일 국내 건설업체의 2013년 해외 수상 사례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 개발, 고난도 토목 건축물의 시공 능력, 안전성, 친환경성 등에서 세계 유수 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상을 탔다.

우선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건설부(BCA)가 주관한 건설대상에서 복합개발 부문과 주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스리랑카 콜롬보항만 방파제 관공에 대한 공로로 민간기업으로는 최초로 스리랑카 대통령의 감사패를 받았다.

SK건설은 터키 이스탄불 해저터널 프로젝트로 지난해 영국 금융 전문지 프로젝트파이낸스(PF) 매거진이 선정한 '2012년 올해의 프로젝트' 영예를 안았다.

쌍용건설은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현장 최초로 1000만 인시(人時·현장 근로자 전원의 근무시간을 합산한 개념) 무재해를 달성하며 싱가포르 안전대상 시상식(ASAC 2013)에서 대상을 수상, 4년 연속 안전대상 수상 행진을 이어갔다.

/박선옥기자

'이사만루'의 함성, 진짜 같죠?

IT Cafe

게임빌 사운드 여왕 이진영 대리

전 세계가 소치올림픽으로 들뜬 가운데 게임업계도 다가오는 스포츠 이벤트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013 프로야구 '이사만루' 등 인기 스포츠 모바일게임 작업에 참여한 게임빌 사운드 파트 이진영 대리로부터 게임 사운드 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모바일게임 사운드는 온라인 PC게임보다 개발 시간과 기대치가 적을 것이란 편견에 대해 이 대리는 "절대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배경음악 담당인 그는 "피처폰 시절에는 모바일게임과 PC게임 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스마트폰 시대에는 아니다"면서 "사운드뿐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 과정은 PC게임 개발과 동일하며 음량,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게임 사운드 개발은 게임 시안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된다. 작곡가는 게임을 분석하며 음악의 밑그림을 그린다.

특히 '생생함'이 생명인 스포츠 게임 사운드 개발 시 현장 답방은 필수다. 관중 함성, 심판 휘슬 소리, 타격 소리 등 실제 소리를 접해야 실감 나는 사운드 개발이 가능하다.

이 대리는 "야구 게임 사운드 작업을 위해 프로야구 시즌 내내 경기장을 찾았다"면서 "현장 소리를 녹음해오기도 하지만 게임 사운드에 그대로 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럴 때는 전문 장비를 사용해 가공음과 '믹스'한다. 실제보다 더 현실감 있으면서도 기계티가 안 나게 섬세하게 작업된 음향은 게임에 입혀져 잘 어울리는지 수없이 테스트된다.

게임빌 사운드 파트 이진영 대리가 작업실에서 모바일 게임 사운드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게임 시안 나오면 음악 밑그림
심판 휘슬·타격소리 녹음 위해
야구 시즌 내내 경기장 출근도
일주일 2~3곡 작곡 '고된 직업'

이 대리는 "게임 음악은 상업 음악이니 해당 콘텐츠와 궁합이 맞아야 한다"면서 "게임 좋은 게임 음악은 상품과도 어울리고 따로 음악만 들어도 감동을 주는 경우"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게임 음악 작곡가를 꿈꾸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이 대리는 "게임 음악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는 게임을 좋아하되 작품을 가리지 않고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게임업계에 들어오면 일주일에 2~3곡씩 작업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니 기초체력을 다져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다. 그는 "작곡은 혼자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거친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남성이 많은 게임업계에서 여성 사운드 개발자로서 고충은 없을까.

이 대리는 "실력으로 경쟁받는 곳이니 성별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경쟁력을 위해 일, 취미·특기가 균형을 이루는 삶 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게임 '괴혼' OST처럼 게임의 한계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임 음악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혜기자 unique@metroseoul.co.kr

스마트폰끼리 배터리 충전 공유 케이블 '빨대' 나왔다

ktcs는 전기 콘센트가 없어도 스마트폰끼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휴대전화 배터리 공유 케이블 '빨대'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빨대는 2대의 스마트폰을 연결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하는 케이블로 안드로이드폰은 물론 아이폰 역시 전용 젠더가 있으면 사용 가능하다. 오렌지, 화이트, 블루, 레드 색상 등 총 4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길이는 25cm로 휴대가 간편하다.

빨대의 소비자가는 1만원이며 현재 옥션, 쉬과 쿠팡에서 출시 기념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ktcs 측은 스마트폰 간 충전 방식을 적용한 빨대는 기술 개발 전문 벤처기업인 엠피에스와 공동으로 특허출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덕연 ktcs 신사업개발팀 팀장은 "데이터 통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고객들이 겪는 배터리 부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빨대를 출시했다"며 "앞으로 참의적이고 실용적인 상품을 벤처기업과 공동 개발해 상호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진기자 hjung0404@

정필재IT 리뷰-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 E-M1

DSLR 같은 미러리스…역대 최고 화질

최근 디지털 카메라는 '작은 DSLR'과 'DSLR 같은 미러리스'가 대세다.

즉 각 제품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장점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상품성을 키우고 있다.

거의 모든 카메라 제조사들이 이 같은 공식에 맞춰 영업을 하고 있다. 미러리스 '펜' 시리즈로 유명한 올림푸스는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DSLR 같은 미러리스를 만들고 있다.

대표 제품이 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 'E-M1'이다. 이 제품은 올림푸스의 DSLR 카메라 E 시스템 시리즈의 포서드 렌즈뿐 아니라 올림푸스 미러리스 카메라의 마이크로포서드 렌즈까지 호환할 수 있어 전 세계 미러리스 카메라 중 가장 다양한 렌즈 활용도를 자랑한다.

어떤 렌즈를 사용하더라도 듀얼 자동초점(AF)시스템이 작동해 최고의 화질을 선물한다. 또 방진 기능과 함께 영하 10도에서도 작동하는 방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1628만 화소의 4/3인치 라이브모스(LiveMOS) 센서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트루픽VII 화상 처리 엔진을 장착해 역대 올림푸스 카메라 중 최고의 화질을 자랑한다.

내장형 전자식 뷰 파인더(EVF)는 1.48배 올린데 풀 프레임 DSLR 카메라에 필적하는 것이다. 디스플레이 타임 래이 0.029초밖에 되지 않아 피사체를 놓칠 틈이 없다.

그런데 DSLR 같은 미러리스를 만들다 보니 덩치와 가격이 커졌다.

높은 감성을 자랑하면서도 경량화를 유도하는 마그네슘 합금이 들어갔지만 무게는 바디 443g(배터리와 메모리 포함 시 497g)으로 가볍지 않다. 아이패드에어가 469g이고, 작은 DSLR로 유명한 캐논 100D는 370~373g(배터리와 메모리장착 시 410g)으로 오히려 E-M1보다 가볍다.

이 제품의 가격은 보디가 145만원, 12-40mm 렌즈킷이 225만원으로 어지간한 중급 DSLR 수준이다. 결국 E-M1은 기존 DSLR의 성능을 원하면서도 휴대가 조금(?) 간편한 카메라를 선호하는 유저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정필재기자 jjay@

'라인' 대화방 메시지 삭제 되네

글로벌 메신저 '라인'이 다양한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10일 라인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는 배경 확인 종류를 늘린 '테마샵' 등장, 대화방 메시지 및 사진 삭제 기능 추가, 메시지 알림을 두 종류 신설, 친구가 아닌 사람이 보낸 인터넷주소(URL) 사전 확인 기능 탑재, 1회 전송 가능 사진 기존 10장에서 20장으로 확대 등의 특징을 지닌다.

테마 샵은 라인의 인기 캐릭터 '코니', '브라운' 외에 '샐리'와 '레너드' 신규 테마를 선보인다. 라인은 추후 '헬로키티', '미라쿠마' 등 인기 캐릭터 디자인 테마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먼저 적용되며 조만간 iOS 버전으로도 확대된다.

앞서 라인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30여 개국에서 이용자 수 3억5000만 명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민혜기자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제로 개막

넥슨은 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의 정규리그 '2014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제로'의 본선 개막전에 만원관중이 운집하는 등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카트 리그 시즌 제로는 출전 선수들이 실제 프로레이싱 팀과 한 팀을 이뤄 대결을 펼치는 새로운 대전 방식을 도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넥슨 제공

쓰기 더 편해진 '오피스 365 홈'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상품 '오피스 365 홈 프리미엄'의 혜택이 커졌다. 10일부터는 최대 5명의 가족이 각자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총 10대의 디바이스에서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오피스 365 홈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한 개의 계정으로 5대의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서로 다른 PC에 설치할 때마다 하나의 계정을 공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클라우드 저장 공간도 풍성해졌다. 오피스 365 홈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35GB에 달하는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오피스 365는 사용하는 기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1년 단위로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서비스다. /하상혼기자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선물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노인 대상 생활고 탓 방치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수술비용 지원 캠페인

'100세 건강시대'란 말이 있듯이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화로 인한 질환을 앓는 사람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무릎 퇴행성관절염'이다.

◆중장년층의 80%가 겪는 퇴행성관절염, 무릎 통증 지속 땐 의심을

무릎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 중 하나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이런 무릎의 지속적인 사용과 손상, 그리고 노화로 시작되는데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릎 연골의 마모다.

즉 충격을 흡수하고 뼈와 뼈가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원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환자는 대부분 중장년층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당연히 나타나는 통증이라 생각하고 질환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잦아지고 결국에는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게 된다.

◆말기라면 '인공관절 수술'이 해답

퇴행성관절염은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초·중·말기로 구분된다. 초·중기에는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작은 통증이 발생하지만 말기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또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차고 다리 모양이 'O'자형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초기나 중기의 경우에는 연골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주사치료나 연골 재생 등의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골이 없어져 뼈와 뼈가 맞닿는 말기상태가 되면 약물이나 주사요법, 물리치료 등은 효과가 없고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인공관절 수술은 연골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인공 구조물을 무릎 내에 이식해주는 수술법으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운동 각도를 늘린 고굴곡 인공관절, 여성의 골격에 맞춘 여성형 인공관절, 개인 골격에 정확히 맞춘 맞춤형 인공관절 등의 종류가 있다. 수술 후에 꾸준히 재활을 한다면 등산이나 여행 등 건강하던 무릎을 가졌을 때의 생활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회복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참으며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비싼 수술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환자들이다.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 수술 비용만 약 200만~300만원 정도가 드는 수술이다. 양쪽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약 500만원가량의 수술비가 발생하며 입원비와 검사비, 간병비 등이 추가로 부담된다. 양쪽 무릎을 수술받으려면 적어도 6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이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환자라면 그 비용은 2배가 된다.

◆엄홍길휴먼재단, 저소득층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 전개

이에 엄홍길(사진) 대장이 설립한 '엄홍길휴먼재단'이 수술에 대한 이런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통증을 참아가며 생활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무료 인공관절 수술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캠페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본인의 어려운 사연과 증상 등을 접수하면 된다. /황재용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우측 배너를 통해 신청

비염치료제 '코싹엘' 출시

한미약품이 약효가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 복합제 '코싹엘'을 출시했다.

코싹엘은 알레르기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레보세티리진 성분과 코 막힘을 해결하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한 알로 합친 약물이다.

한미약품은 코싹엘이 코 막힘·재채기·콧물 이외에 눈·코의 소양증 등 계절성 및 만성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효과적이고 코감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레보세티리진은 약효 발현 속도가 빠르고 졸음·집중력 약화 등 부작용이 적은 제3세대 항히스타민 성분이다. 레보세티리진을 포함한 코싹엘은 이중 제형으로 제조돼 1회 복용 시 약효가 최대 12시간까지 지속된다"고 말했다. 코싹엘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이국명기자

여드름 흉터 말끔히 지우고 '도자기 피부'로 새학기 출발

흉터 유형별 치료법 소개

새 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얼굴 군데군데 움푹 패인 여드름 흉터가 남아있다면 새로운 만남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해도 호감 있는 첫인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드름 흉터 치료법을 소개한다.

◆깊게 패인 흉터에는 '비봉합편지술'이 효과적

먼저 깊게 패인 여드름 흉터에는 '비봉합편지술'이 효과적이다. 비봉합편지술은 좁고 깊게 패인 여드름 흉터 크기에 맞는 전용 펀치를 이용해 흉터를 피부만큼 끌어올려 높이를 맞추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펀치로 함몰된 피부를 끌어올린 후 봉합사로 세매 회복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비봉합편지술은 펀치로 잘게 후 함몰된 흉터를 끌어올려 특수 약물을 이용해 고정하기 때문에 피부 재생과 흉터가 빠르게 개선된다. 또 흉터 크기에 맞는 전용 펀치로 환자에게 맞는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 후 당일 세안과 화장도 할 수 있다.

◆모양과 깊이가 제각각인 흉터는 '타깃치료'로 해결

여드름 흉터의 패인 단면은 얼음송곳형, 박스형, 둥글게 패인 형 등 모양과 깊이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흉터는 '타깃(Target)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치료는 흉터의 모양과 깊이에 관계없이 모든 여드름 흉터 밑에 있는 섬유모세포를 직접 자극하는 치료법으로 브라셔널 계통의 울트라펄스 앙코르 레이저를 이용한다. 레이저 빔을 마이크로 단위로 미세하게 나누고 빔과 빔 사이에 정상 피부조직을 충분히 남겨 직접적인 레이저 열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얕은 흉터는 물론 깊은 흉터에서도 피부 재생과 회복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깊은 흉터가 넓다면 '레이저박피'로

깊은 여드름 흉터가 넓게 퍼져 있다면 레이저박피술로 치료할 수 있다. 레이저박피술은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어븀야그 계통의 프로파일 레이저를 사용해 재생을 촉진하면서 피부결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색소침착이 잘 생기는 한국인의 피부 특성에 맞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다.

/인세스타피부과 제공

강진문 인세스타피부과 원장은 "여드름 흉터 치료는 흉터의 크기와 부위, 환자의 피부 상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졸업만찬' 계산할 맛 나네

빕스 졸업생 동반시 할인 등 외식·유통가 신학기 마케팅

/스시로 제공

국내 외식·유통업계가 졸업과 입학 시즌 특수 잡기에 나섰다. 신입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균일가 할인부터 특급호텔 무료 뷔페 이용, 앙증맞은 사은품 증정 등 일생에 3~4번밖에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행사들을 준비했다.

CJ푸드빌의 외식 브랜드 빕스는 3월 2일까지 졸업생을 동반한 테이블에서 스테이크 주문 시 졸업생 한 명에게 샐러드바를 2014원에 할인 제공한다. 졸업장을 제시한 본인에 한해 할인 가격이 적용되며, 3인 방문 시 졸업생 1인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6인 이상 방문해 스테이크 2개 이상 주문 시 최대 2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시그니처 레스토랑 '피스트'는 2월과 3월, 올해 신입 졸업생에게 무료로 뷔페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2월 한 달간 졸업생을 포함한 4인 가족 방문 시 졸업생 1인에게 뷔페에 무료로 입장시켜준다. 3월 한 달 동안은 입학생에게 동일한 혜택을 준다.

회전초밥 레스토랑 스시로한국은 전 매장에서 오는 28일까지 본인의 졸업사진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모든 스시 접시를 170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롯데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동 63빌딩 내 각 레스토랑들은 3월 2일까지 '해피 그레쥬에이션 이벤트'를 연다. 63뷔페 파빌리온(B1F)은 4인 이상 이용 시 졸업·입학생 본인에 한해 1인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또 워킹온더클라우드(59F), 슈치쿠(58F), 백리향(57F)에서 3인 이상 동일 코스 메뉴 이용 시 졸업·입학생 로 이용 가능하다.

디지털사진 인화기업 디지털포토픽스는 사진 인화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해 오는 25일까지 3×5사이즈부터 A3사이즈까지 일반사진 인화 전 사이즈를 30% 할인가에 제공한다. 가장 인기 있는 3×5 사이즈의 할인된 가격은 장당 77원이다.

패션선문점 쿨메이드는 28일까지 '나의 첫 정장' 이벤트를 통해 신사복 브랜드인 브루노바피 정장 제품을 구입하는 만 28세 이하의 모든 고객에게 넥타이를 증정한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수입 과일 값 FTA 하나마나

칠레포도·美 오렌지 작황 나빠져 '무관세' 무색

/롯데마트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으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소비자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수입 과일류가 이상기후 등으로 현지 작황이 나빠져 무관세 혜택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산 과일은 풍작을 이루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기존 4.1%에서 올해 1월부터 무관세가 적용된 칠레산 포도의 경우 현지 이상기후로 냉해 피해가 심해 수입 단가가 오히려 높아졌다. 1월 말(1월 23~29일 평균) 가락시장 수입 포도 가격은 4만9010원으로 지난해 1월 평균 가격 4만1184원보다 19% 가량 급등했다.

이로 인해 롯데마트의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에서 '칠레산 포도(1.2kg)' 역시 작년보다 10% 오른 1만990원에 판매되고 있다.

또 미국산 오렌지는 오는 3월부터 8월까지는 지난해보다 5% 낮아진 20%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다. 하지만 북미 한파로 캘리포니아 산지가 냉해 피해를 입어 수입량이 35% 감소하면서 '대이블 오렌지(18kg·상)' 가격은 5만3728원으로 작년보다 50% 이상 폭등해 관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수입 과일들의 가격이 올랐지만, 국산 과일은 지난해 작황이 좋아 출하량이 늘어 가격이 하락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딸기 설향(2kg·상)'의 도매가격은 1만6804원으로 지난해 2만2635원과 비교해 27%가량 하락했다. '배 신고(15kg·상)'는 3만9991원으로 작년 6만2398원과 비교해 35%가량 하락했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딸기' 9.6%, '배' 13.5%, '토마토' 20.6% 등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정성훈기자

금메달 따는 날 구이 테이블마다 육회 공짜

강강술래 '소치 응원' 이벤트 야식세트 40% 할인 판매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이달 23일까지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날 모든 매장에서는 영업 종료 시까지 구이 메뉴를 시킨 고객에게 테이블당 하나씩 한우 육회를 서비스로 준다.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응원할 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야식세트를 40% 할인 판매한다.

질좋은 우직갈비(360g·1박스)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2박스)로 구성된 '코리아세트'는 2만8300원. 동동심돈가스(720g·1박스)와 모짜렐라돈가스(720g×2박스)로 구성된 '파이팅 세트'는 3만600원에 구매 가능하다.

3회 연속 종합순위 10위권 달성을 기원하는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 10봉으로 구성된 '텐텐세트'도 3만6000원에 판매한다.

늦은 밤 응원에 지친 고객들의 기력 보충에 좋은 100% 한우사골곰탕(800ml·30인분·10팩)도 6만4800원에 살 수 있다.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ullai)에 '좋아요'를 누른 후 응원 이벤트 글에 오는 16일까지 격려와 응원 댓글을 남기면 3명을 추첨해 돈가스(동동심·모짜렐라) 각 1박스를 보내준다.

/박지원기자

솔로도 '밸런타인 선물' 한다

옥션 회원 대상 선물 눈길

밸런타인데이에 배우자나 애인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초콜릿과 선물을 함께 선물하고, 싱글들은 가족이나 자기 자신에게 셀프 선물을 할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옥션은 자사 회원 910명을 대상으로 밸런타인데이 선물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선물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커플의 경우 미혼자는 86.7%, 기혼자는 74.6%가 상대방을 위해 선물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싱글족의 46.5%도 선물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싱글남의 55%는 자신에게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셀프 선물'을, 싱글녀의 54%는 가족에게 선물을 계획 중이었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43%는 초콜릿 이외 다른 선물을 함께 준비한다고 응답했다.

초콜릿과 사탕 외에 받고 싶은 선물로는 남성의 경우 화장품과 IT 기기가 1, 2위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화이트데이에 화장품과 커플 링을 받고 싶어 했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 중 58%는 e쿠폰과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선물 부담을 줄일 계획으로 조사됐다. 밸런타인데이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싱글족의 70%가 "의미 없는 단순한 금요일"이라고 답했다.

지경민 옥션 온사이트마케팅팀 부장은 "전통적으로 초콜릿을 선물하던 밸런타인데이 풍습이 특별한 선물까지 함으로 선물하는 문화로 바뀌면서 비용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e쿠폰과 모바일쿠폰 등의 알뜰 소비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alive0203@

'소치 올빼미족' 덕에 심야 편의점 바쁘다 바빠!

소치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야간 TV 경기 중계를 시청하는 소위 '올빼미족'들이 늘고 있다. 이 영향으로 편의점에서 야간 시간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이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난 7일 이후 3일간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올림픽 경기 중계가 한창 진행되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장 인기를 끈 상품은 겨울철 비수기 상품인 '맥주'였다. 맥주류는 전년 동기 대비 25.7% 늘었고 냉동만두는 18.1%, 치킨류는 13.0%, 육가공류는 16.4% 등 대표적인 야식거리 매출도 덩달아 뛰었다. 도시락, 김밥 매출도 각각 22.8%, 16.7% 신장했다. 소주는 17.2% 늘었고, 주류 판매가 늘면서 안주류와 스낵류도 각각 22.3%, 20.4%씩 판매가 증가했다.

/정성훈기자

<벙그대 속 컨지천>

천송이 안부러운 꽃송이 패션

겨울의 끝 만개한 꽃무늬 패션… 모던한 컬러와 우아한 패턴 눈길

한겨울 백서운 한파에도 꽃은 핀다. 긴 봄을 속 패션업계에서는 농염하게 피어난 꽃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봄 시즌 단골 패턴인 플라워 프린트가 칙칙한 겨울옷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 겨울 막바지를 화사하게 물들인 꽃무늬는 기존의 진부한 모습을 벗어나 성숙하고 진진해진 것이 특징이다.

꽃밭을 연상시키는 슈트는 생동감 있는 룩을 연출하기에 제격이다. 드리스 반 노튼은 만개한 꽃이 가득한 팬츠와 슈트를 선보였다. 모던한 컬러와 여성스러운 꽃이 어우러져 우아함이 돋보인다. 마르니의 오버사이즈 재킷과 스커트는 동양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꽃들로 고풍스러우면서도 클래식함을 전하고 있다.

◆한 가지 아이템으로 색다른 변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꽃무늬로 도배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상의나 하의 등 한 가지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여름 들어 랄룩달록한 플라워 팬츠에 심플한 블랙 셔츠를 입거나 꽃무늬 니트에 단색의 스키니진을 코디하는 방식이다. 소니아 리키엘은 꽃 잎 부분을 시스루 소재로 활용한 니트에 빨간색 가죽 팬츠를 매치해 도회적인 여성미를 강조했다.

슈즈, 백, 스카프, 귀고리 등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왕이면 프린트가 큼직하고 색상이 화려한 아이템을 활용한다.

예컨대 모노톤의 니트와 팬츠에 바나나 리퍼블릭의 플라워 스카프를 걸게 늘어뜨리면 멋 부린 듯 안 부린 듯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된다. 마르니가 선보인 목걸이와 펜던트는 꽃잎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이트 셔츠에 매치하면 깔끔하면서도 단아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pa@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쉬크 신제품 체험 이벤트

● 면도기 브랜드 쉬크는 '하이드로 그루머'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체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쉬크 홈페이지에서 무료 샘플링 신청 팝업창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중 매주 20명씩, 총 160명에게 면도기를 증정한다.

더 샘 "졸업생에게 할인·적립"

● 더샘이 20일까지 '졸업 입학 축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더샘 멤버십에 가입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제품 구매 시 20% 할인과 함께 10%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크록스 신상품 '스트레치 슬'

● 슈즈 브랜드 크록스는 '스트레치 솔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자체 개발한 첫투유 기술을 아웃솔에 적용, 360도로 휘어질 만큼 유연성이 좋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남성용과 여성용 각각 2종씩 출시됐으며, 가격은 8만9900원.

뷰티한류 이끄는 마스크팩

외국인 구매품 조사 결과 올리브영 매출의 35% 1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헬스·뷰티숍에서 '마스크팩'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뷰티숍 올리브영은 지난해 명동점에서 외국인들이 구매한 100대 상품을 조사한 결과, 마스크팩이 전체 매출의 35.2%로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음으로 스킨·로션 등 기초 화장품, 헤어 고데기·참푸·린스, 피부 건강기능식품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마스크팩 브랜드로는 '메디힐' '케어스인비이스' '차앤박' 등 국내 중소 브랜드들이 주를 이뤘다. 마스크팩 관련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패키지 등을 선보이며 각국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소비자들은 기초화장품(36.2%)을 가장 많이 구입했다. 이어 색조화장품·마스크팩·클렌징 제품·헤어에센스 등이 뒤따랐다. 마스크팩 구매는 외국인과 달리 8.3%에 그쳤다.

/박지원기자

그릇도 이불도 꽃밭이로세

봄마다 인기 끄는 꽃무늬 올핸 심플한 디자인 활짝

올봄 주방·침구용품에 '꽃무늬 바람'이 불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업체들이 2014 봄·여름 패션 트렌드와 부합되는 플라워 프린트를 활용한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화사한 꽃무늬 제품은 가격 대비 기분전환은 물론 인테리어 효과가 커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자기 브랜드 한국로얄코펜하겐의 '블루 하프 레이스'는 국화꽃과 레이스 무늬가 어우러진 한식 그릇으로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물씬 풍긴다. 특히 화사한 꽃무늬가 상차림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하얀 바탕과 블루 패턴의 조화가 음식의 정갈함을 더해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침구 브랜드 이브자리는 꽃다발을 모티브로 한 봄·여름 시즌 신제품을 선보였다. 깨끗한 봄을 표현한 '비니스'는 큐어트 플라워 패턴이 눈길을 끈다. 특히 베개와 이불 커버 끝단은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해 발랄한 분위기를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봄·여름에는 화려한 꽃무늬 패턴이 인기를 끌었지만 올해는 심플한 디자인과 포인트 패턴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리복 액소핏' 뉴욕서 찬사

고태용 콜라보 컬렉션 화제

리복은 디자이너 고태용과 콜라보레이션한 '액소핏'이 2014 가을·겨울 뉴욕 패션위크에서 찬사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비욘드 클로젯의 디자이너 고태용은 뉴욕 패션위크에서 마지막 휴가라는 주제로 밀리터리룩과 리복 액소핏이 조화된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패션쇼의 스타일링 디렉터인 줄리 올골리아는 "비욘드 클로젯과 리복의 액소핏의 만남은 밀리터리와 모던 접함의 완벽한 조합이었다"고 극찬했다. 패션 디렉터 닉 우스터도 "스타일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발"이라며 "이번 밀리터리 콘셉트와 리복 액소핏의 매치는 조화로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나영 리복 마케팅 이사는 "리복 액소핏이 글로벌 패션 무대에서 그 잠재성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새롭게 출시될 액소핏은 흰색과 천연 소가죽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뉴욕 패션위크에서 모델들과 함께 선 고태용(오른쪽)

/박지원기자

스무디킹 '좋아요' 하면 1+1 쿠폰

밸런타인데이 맞아 14일까지 '카카오 익스트림' 구매 혜택

글로벌 넘버원 오리지널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대표 김성완)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 특별한 날의 데이트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먼저 연인과 함께 진한 다크초콜릿의 맛과 영양을 나누고 싶다면 스무디킹 브랜드 페이스북을 방문해 '좋아요'를 눌러 팬이 된 뒤 '카카오 익스트림'을 1+1으로 구매할 수 있는 '로맨틱 스무디 1+1 쿠폰'을 내려받으면 된다. 이 쿠폰은 10일부터 14일까지 다운로드 가능하며 오는 2월말까지 전국 스무디킹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일부 매장 제외·동일 사이즈 제공).

특별한 날을 위한 로맨틱한 선물을 기대한다면 스무디킹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밸런타인데이를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을 태그해 이벤트를 공유하고, '내가 생각하는 밸런타인데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스무디'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추첨을 통해 카카오 익스트림 스무디,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스틱, CGV 영화 티켓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황경일기자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고 가감 없는 모습으로 진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가인이 셀프카메라 형식으로 직접 촬영한 새 앨범 재킷 사진

세번째 솔로 '트루스 오어 데어' 발표 가인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막내 멤버로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기던 가인(27)은 2012년 두 번째 솔로앨범 타이틀곡 '피어나'로 섹시 여가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섰다. 1년4개월 만에 발표한 세 번째 앨범 '트루스 오어 데어'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직설적인 표현과 한층 농염해진 매력의 음악으로 채웠다.

◆ 솔로 활동 내게만 초점 엘리 커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멤버일 때는 케미와 조화에 치중하며 절제된 모습만을 보여준다. "솔로 활동을 할 때는 오로지 내게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책임감만큼 덤에서 재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만의 개성은 앨범 발매 전부터 엿보였다. 선공개곡 'Fxxk U'에서 그는 욕설이 담긴 가사를 담은 것은 물론 배우 주지훈과 위태로운 남녀의 거침없는 사랑을 연기한 뮤직비디오로 떠들썩한 화제를 모았다.

> 이효리·박진영 등 참여
> 타이틀 '진실 혹은 대담'
> 소문 주제로 풀어냈죠
> 난 쿨한 여자… 호호호

"19금 음악과 뮤직비디오가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고 저 역시 여러 번 시도해 식상할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곡나부터 일까지 직접 다 신경 쓰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지난 앨범들과 가장 다른 점은 연예인 가인과 인간 손가인을 떠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섹시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보다 자신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더 야릇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노출만으로 줄 수 없는 느낌 말이죠."

타이틀곡 '진실 혹은 대담'은 연예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소문이라는 주제를 가상의 캐릭터로 표현한 곡이다. 뮤직비디오는 대중이 이미지로 그리는 가상의 여가수 '가인' 곁에서 함께해온 스태프와 동료들어 바라본 가인의 모습, 그를 둘러싼 소문과 진실에 대해 신랄하게 폭로하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됐다.

"누구에게나 소문은 따라다니죠. 사람들은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요. 저를 비롯한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노래로 표현했어요."

'생각보다 쿨한 여자'라고 자신을 설명한 가인도 8년간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각종 황당한 소문과 마주하기도 했다.

"왜 그런 소문이 나오는지 저도 궁금한 얘기들을 들었죠. (2AM의 조)권이랑 사귄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진짜처럼 느껴질 만큼 친한 친구라서 그런가 봐요."

◆ 박진영·이효리·조권 참여 화려한 앨범

2009년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호흡을 맞췄던 조권은 비트곡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이후 4년 만에 가인과 듀엣곡 'Q&A'를 부르는 우정을 과시했다.

'Q&A'를 작사·작곡한 박진영 외에 '블랙&화이트'를 작사·작곡한 이효리 등 유명 가수의 참여도 화제를 모은다. 이효리는 끝없이 파에다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의 곡을 인디한 사운드와 드라마틱한 전개로 완성했다.

'블랙&화이트'는 지난해 9월 녹음을 마친 곡으로 이효리가 다른 가수에게 준 첫 번째 노래다.

"처음 만나 녹음실에서 작업할 때는 TV에서만 보던 분이 눈앞에 있어서 집중이 안 됐어요. 효리 언니가 노래 실력을 칭찬해주기도 했지만 저는 무대에서 보지 못한 프로듀서로서 언니의 아우라에 압도당했어요."

2009년 영화 '내 사랑 내 곁에'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 폭을 넓힌 그는 지난달 29일 개봉한 '조선미녀삼총사'를 통해 주연급 연기자로 성장했다. 그는 "욕심내지 않고 책임감 있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마마무(왼쪽 첫째 넷째)가 케이윌(오른쪽) 휘성과 함께 녹음을 진행하고 있다

휘성과 녹음한 마마무가 누구?

정식데뷔 하지않은 4인조 걸그룹 '화제'

정식 데뷔를 하지않은 4인조 신인 걸그룹 마마무가 인기 보컬리스트 휘성·케이윌과 함께 녹음하고 있는 현장 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마마무 측이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은 "2011 02 11 케이윌 휘성 마마무 커밍순"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됐다. 특별한 추가 설명 없이 11일에 공개된다는 글만 담겨있어 팬들 사이에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멤버들은 또 "2월 11일에 공개될 케이윌+휘성+마마무 음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라는 글을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달 범키와 함께 싱글 '행복하지마'를 발표하며 이름을 알린 마마무는 두 번째 싱글 프로젝트에서 케이윌과 휘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최근 JTBC '히든싱어2'에 모창 가수가 왕중왕 최종 승자에 오르며 집중 조명받고 있는 '대세' 가수다. 휘성의 절친한 동료이기도 한 케이윌은 발표하는 신곡마다 연달아 음원차트 정상에 올려놓으며 흥행 불패를 이어가고 있다.

마마무는 정식 데뷔를 하지도 않은 신인임에도 가요계 실력파 가수들과 연달아 작업을 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유순호기자 suno@

'왕가네…' 짜릿한 전개의 힘

종영 앞두고 시청률 48% 돌파…'제빵왕 김탁구' 기록 깰지 관심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사진)이 종영을 앞두고 시청률 50% 고지를 눈앞에 뒀다.

10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송된 '왕가네 식구들'은 전국 기준 시청률 48.3%를 기록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49.9%로 50%에 육박했다.

지난 8일 방송분(41.3%)보다 7.0% 상승한 수치이자 지난달 26일 기록한 자체 최고 시청률 46.7%보다 1.6%포인트 높은 성적이다. 이로써 '왕가네 식구들'은 또 한 번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50% 돌파 가능성에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왕가네 식구들'은 종영을 2회 앞둔 상황에서도 극적인 전개를 이어가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지난 9일 방송에서는 왕수박(오현경)이 빗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민중(조성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고민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순정(김희정)은 고민중과 왕수박의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왕수박은 고민중의 마음을 잡기 위해 오순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왕가네 식구들'이 2010년 '제빵왕 김탁구'가 기록한 시청률 50%를 넘어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왕가네 식구들' 후속으로는 22일부터 김희선과 이서진이 주연하는 가족 드라마 '참 좋은 시절'이 방송된다. /탐윤기자 yyw@metroseoul.co.kr

태연·종현 듀엣 발라드 '숨소리' 공개

SM엔터테인먼트의 발라드 유닛 'SM 더 발라드'가 10일 타이틀곡 '숨소리'를 공개했다.

SM은 "'SM 더 발라드'가 10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소녀시대 태연(오른쪽 사진)과 샤이니 종현(왼쪽)이 부른 '숨소리'를 공개한다"며 "한·중·일 3개국 버전으로 제작된 '숨소리'의 일본어 버전은 동방신기 최강창민과 에프엑스 크리스탈이, 중국어 버전은 엑소 첸과 장리인이 호흡을 맞췄다"고 밝혔다.

'숨소리'는 이별 후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공간에서 한숨만 쉬는 상황을 가사로 풀어낸 듀엣 발라드다. 'SM 더 발라드'는 10일 타이틀곡 '숨소리' 한국어 버전을 시작으로 4일간 새 앨범 수록곡 음원을 일려이로 공개한다. 12일에는 삼성동 코엑스아티움에서 신곡 라이브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한편 태연과 종현은 13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숨소리' 활동을 펼친다. /황성운기자

'고혹적 뱀파이어의 유혹' 24시 [illegible] 가수 선미가 [illegible] 이달 [illegible] 컴백을 앞둔 그는 10일 파격적인 콘셉트의 티저 사진을 공개했다. 붉은 소파에 앉아 각선미를 드러낸 아름다운 소녀 뱀파이어로 변신해 독특한 매력을 드러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선미의 하이엔드 섹시미로 해석된 뱀파이어는 [illegible] 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효린이 부른 '겨울왕국' OST '렛 잇 고' 발매

씨스타 효린(사진)이 부른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의 OST '렛 잇 고' 한국어 버전이 정식 음원으로 10일 발매됐다.

효린은 '겨울왕국' 개봉 전 자신이 직접 출연한 '렛 잇 고' 홍보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고, 그가 부른 노래는 애니메이션 엔딩 크레딧 장면에도 등장해 영화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현재 '렛 잇 고'가 각종 음원차트 상위권을 휩쓰는 등 애니메이션 OST로는 이례적인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효린의 한국어 버전까지 공개돼 '렛 잇 고' 열풍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16일 개봉한 '겨울왕국'은 10일 오전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773만 명을 돌파했다.

높은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버전의 노래들을 모두 수록한 '겨울왕국' 한국어 특별판'도 곧 발매될 예정이다. /지은현기자 lak@427@

"개그맨 윤형빈 격투기 데뷔전 보자"…역대 최고 시청률

개그맨 윤형빈(사진)의 격투기 데뷔전이 역대 '로드 FC' 경기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10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9일 케이블 채널 수퍼액션에서 생중계한 '로드 FC 14'가 평균 시청률 2.6%, 최고 시청률 7.2%를 기록해 케이블 채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로드 FC' 경기 중 최고치다.

이날 대회에서 단연 주목받은 시합은 윤형빈의 라이트급(70kg 이하) 매치였다. 윤형빈의 경기는 평균 시청률 7.1%를 기록했으며, 이날 최고의 1분 역시 다카야 츠쿠다를 TKO승으로 꺾은 윤형빈의 관지 장면으로 집계됐다.

CJ E&M 김지민 PD는 "이번 시청률은 그간 중계한 '로드 FC' 대회 평균 시청률의 2배가 넘는 수치"라며 "윤형빈의 경기에 남녀 시청자 모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윤형빈은 일본 다카야 츠쿠다를 상대로 1라운드에 TKO승을 거뒀다. 1라운드 1분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다카야의 안면에 연속 유효타를 가격하며 1라운드 4분 19초 만에 승리를 확정 지었다. /황성운기자

"재밌는 록쇼 보여줄게요"

19일 내한공연 앞둔 싱어송라이터 에이브릴 인터뷰

캐나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에이브릴 라빈(사진)이 3년 만에 한국 팬들과 만난다. 19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여섯 번째 내한공연을 열게 됐지만 티켓은 또 한 번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에서의 뉴터운 인기를 입증했다. 그는 2002년 발표한 데뷔 앨범으로 한국에서만 27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최근 출시한 5집에서 팝과 록을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 세계를 보여줬다.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 소감은

한국 공연은 매번 매 순간 항상 좋았고, 한국 팬들도 최고다. 항상 기억에 남는 투어 도시이고 매번 기대가 많이 된다.

–5집을 준비하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려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 기존의 저와는 다른 면들과 다른 스타일로 다양한 면을 많이 보여주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앨범에 대해 새로운 시도라는 평이 많다. 이전 앨범들과의 차이점은

이전 앨범들에 비해 가볍고, 발랄하며 재미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앨범에 남편이자 록밴드 니켈백의 채드 크로거가 참여한 것이 눈길을 끈다. 둘은 음악적으로 어떤 사이인가

우리의 음악적 스타일은 매우 다르다. 작곡을 할 때에 같이 작업하는 방식이나 도달하는 과정이 매우 달라서 그와 함께 일하면 무척 재미있다.

–새 앨범에서 현재 3곡이 싱글로 나왔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과 뮤직비디오 촬영 과정이 재미있었던 곡은

세 곡 다 스타일이 매우 달라서 좋았다. 그중에선 '렛 미 고'가 제일 좋다. 아무래도 남편 채드와 부른 첫 번째 듀엣곡이어서 그런 것 같다. '렛 미 고' 뮤직비디오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단 하루 동안 찍은 건데 짧은 시간임에도 좋았다. 남편이 뮤직비디오의 절반을 촬영해 함께 작업하는 동안 정말 재미있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팬들에게 특별히 보여주고자 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이번 공연은 재미있는 록 쇼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다. 이번 앨범의 새로운 곡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발표한 수많은 곡들을 선보일 것이다. 한국 팬들에게 새 앨범의 새로운 노래들을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기쁘다.

–공연을 기다리는 한국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서울을 다시 방문하게 돼 기쁘다. 항상 제 음악을 지지해주는 한국 팬들에게 감사드린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신민아·조정석 부부 호흡 맞춘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출연

배우 신민아(사진 왼쪽)와 조정석(오른쪽)이 20여 년 만에 리메이크되는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 신혼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이 영화는 1990년 박중훈·최진실이 주연을 맡아 당시 신혼부부의 삶을 현실적으로 그려 화제가 된 로맨틱코미디를 20여 년이 흐른 현 시대에 맞춰 새롭게 각색해 보여준다.

영화 '고고70' '키친',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아랑사또전'에서 매력을 뽐냈던 신민아는 이번 작품에서 똑소리 나는 사랑스러운 새내 미영으로 분한다.

영화 '건축학개론' '관상',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등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조정석은 대한민국 평균 남편 영민 역을 맡았다. '효자동 이발사'의 임찬상 감독이 원작을 연출한 이명세 감독의 바통을 이어 연출을 맡았다.

영화는 이달 말 크랭크인해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탁진현기자

'은퇴 선언' 러버프 레드카펫서 종이봉투 시위?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스타 샤이아 러버프(사진)가 제64회 베를린영화제 레드카펫에서 머리에 봉투를 뒤집어쓰고 나타나는 기행을 벌였다.

러버프는 9일 영화제의 일환으로 열린 주연작 '님포매니악'의 상영 레드카펫 행사에서 '나는 더 이상 유명하지 않다(I AM NOT FAMOUS ANYMORE)'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봉투를 머리에 쓰고 나타났다.

앞서 진행된 '님포매니악' 기자회견에는 후줄근한 점퍼와 모자 차림으로 등장해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영화 속 수자레 등장하는 정사 장면에 대한 질문에도 "갈매기가 고깃배를 따라오는 이유는 어부들이 정어리를 바다에 버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관용구로 짧게 답한 뒤 퇴장했다.

그는 얼마 전 자신이 연출한 단편영화 '하워드 캔투어 닷컴'이 대니얼 크로의 '그래픽노블'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휘말리자 은퇴를 선언해 화제가 된 바 있다.

AFP 연합

/탁진현기자

아메리칸 허슬

노예 12년

아카데미상 최다 후보작 만나보자

'아메리칸 허슬' '노예 12년' 이달 국내 개봉

다음달 2일(현지시간) 열릴 아카데미 시상식 최다 후보에 오른 '아메리칸 허슬'과 '노예 12년'이 국내 관객의 평가를 먼저 받는다.

작품상을 포함해 10개 부문 후보에 오른 데이비드 O 러셀 감독의 '아메리칸 허슬'이 20일 개봉한다. 이 작품은 이미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부문 작품상을 비롯해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까지 3관왕에 올라 국내 관객에게도 기대가 높다.

1970년대 후반 미국 뉴저지를 배경으로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FBI 함정수사에 사기꾼이 협력해 진상을 폭로한 실화를 담았다. 크리스천 베일·에이미 애덤스·제니퍼 로런스·브래들리 쿠퍼·제레미 레너의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9개 부문에 후보를 올린 스티브 맥퀸 감독의 '노예 12년'은 27일 관객과 만난다. 이 영화 역시 골든글로브 시상식 드라마 부문 작품상뿐 아니라 미국제작자조합상 작품상까지 휩쓴 수작이다.

실화를 그렸다는 점에서도 '아메리칸 허슬'과 비슷하다. '노예 12년'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노예주'와 그렇지 않은 '자유주'로 나뉘어 있던 1841년 미국을 배경으로 평범한 음악가로 살다가 사기와 납치로 인해 노예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 밖에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후보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매슈 매코너헤이 주연의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시상식 결과가 나온 후인 다음달 6일 개봉 예정이다. /박강현기자 kh0427@

한은정 4년만에 안방 복귀

배우 한은정(사진)이 음봉 브라운관에 복귀한다.

한은정은 오는 4월 방송되는 KBS2 새 수목극 '골든크로스'에서 베일에 싸인 클럽 마담 홍사라 역을 맡았다. 드라마 '골든크로스'는 음모에 휘말려 가족을 잃은 남자의 복수극을 다룬다. '각시탈' '즐거운 나의 집'의 유현미 작가와 '뒤네요 미스터 김' '메리는 외박중'의 홍석구 PD가 뭉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은정의 드라마 복귀는 2010년 '구미호 여우누이뎐' 이후 4년 만이다.

극중 한은정은 들려도 안 듣고 보고도 안 보는 신중하다 못해 그림자 같은 여자인 홍사라 역을 연기한다. 모나리자같이 늘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으며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풍문에도 휘둘리지 않는 캐릭터다.

'골든크로스'는 '감격시대' 후속으로 방송된다. /정해욱기자 yuk@

감동을 줬던 최근의 일

박상현의
트렌드읽기

한 남녀가 공원 벤치에 피켓을 세워놓고 앉아있다. 피켓에는 '여러분,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모으는 중입니다'라고 쓰였다. 이 '낯선 사람 프로젝트(Strangers Project)'는 이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삶에 대한 우연가를 나눠달라고 하면 공통점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일 중독자로 살다 암에 걸려 투병하다 삶의 기준을 바꾼 여자, 뉴욕을 거쳐 디즈니랜드에 가려 했으나 엔니가 입원하는 바람에 9개월째 뉴욕에 머물게 된 아홉 살 소녀의 이야기는 웹 사이트와 페이스북에 올려졌다. 사람들의 과거(History)는 의미 있는 이야기(Story)로 재탄생됐다.

브라질 상파울루 거리에 용광로가 등장했다. 젊은 카타도르(고물 수거인)는 거리에 널린 아연수 잎과 벽돌, 공사장 모래 등을 이용해 주물을 만든다. 여기에 버려진 캔을 모아 용광로에 녹인 주물을 붓는다. 주물이 식으면 근사한 알루미늄 의자가 완성된다. '캔 사타'로 명명된 프로젝트는 완성된 제품도 인상적이지만, 고물 수집에서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나자인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손수레를 끌고 거리의 폐품을 거두는, 도시 내 재활용의 90%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삶이 또 다른 자원와 가치 창출 통로였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사람이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린다면 어떨까? 우리는 이미 그 정도쯤이야 로 생각하고 있은지 모르겠다. 자다트 이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운영 중인 아부 고시에 새로운 할인 규정을 세웠다. 식사를 하는 동안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하지 않고 사람을 마주하는 것에 집중할 경우 식사비의 50%를 깎아주는 것이다. 운영자는 밥도 먹지 않고 스마트폰에 빠진 행위는 제2의 흡연과 같다며 사람들에게 경계를 당부했다.

'T' 트렌드가 불붙기 시작했다. 두드러지는 현상은 근원적 희소성을 찾으려는 흐름이다. 사람이 가진 감성과 가치 중에서 태초부터 있었던 것들에 대한 추적과 재해석 현실화다. 사랑, 우정, 믿음, 배려과 같이 순수한 에너지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던 최근의 일은 무엇이었나. /트렌드랩 www.dk.co.kr 대표

날씨

2/11 火 일출 07:27 일몰 18:0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531.co.kr

서울 -6/3
청주 -6/4
대전 -6/5
전주 -6/3
광주 -4/3
제주 2/8
강릉 -5/1
울릉도 -1/-2
대구 -5/4
포항 -1/3
울산 -2/4
부산 -2/6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눈이 내린 후 생긴 빙판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평소 충분한 칼슘 섭취로 골소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포항공대 서울병원 (www.psh.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6	5						3	2
		4				5		
2			4		6			9
	1		7		3		5	
3			8		9			4
		7				2		
1	4						9	5
			2		8			

1				5		3		
	6			7		8		
							9	
			9				1	
9	2				1	7		
				8		9		4
4	9			1	7			3
		5	6					8
					4	5	7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팩스터
(마플러 미디어 리미티드 제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sa4005.com

여자 만날 인연 과연 있을까요 몇년 지나야 배우자 만날 사주

죽음과 부를 남지(생년월일시 비공개)

Q 백수로 지내다 지난해 12월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고, 현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첫사랑을 제외하곤 여자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데 인연이 나타날까요?

A 생월에 정화(丁火)가 귀하의 수호신으로 앉어 권 언무기 생활의 무기가 됩니다. 백호(白虎)의 기질을 가져 주체가 강하고 직장이나 미래에 건재함이 있는 출중한 사주입니다. 사회에 귀인을 뒤 뜻하지 않은 윗사람의 도움으로 직장이나 사회 합격운이 있으며 친구의 도움이 항상 따릅니다. 재물의 창고를 뒤 2016년부터 뜻하지 않은 합작이 있으며 반면 탈재(奪財)도 따르므로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가져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인연은 2017년과 2018년에 배우자운이 있으니 일하면서 자기 개발에 힘쓰세요. 6~7월 지나면서 직장 동료와의 트러블에 유의하세요. 다음 상담 때에는 생년월일을 꼭 표기하세요.

고향친구 동업제의 받았는데 샐러리맨 팔자이니 명심해야

배두산산 남자 69년 4월 2일 음력 점심식사 전

Q 보험설계사를 하다 다단계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이 안 됩니다. 최근 생수 사업을 하자는 고향 친구의 제의를 받았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어야 해 걱정이 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A 5월 지나면 나아지니 기다려 보십시오. 활동 면에서 2014년 직장과 겁재(劫財)가 동반돼 동업의 기운이 다가오는데 매우 좋지 않게 해어지게 됩니다. 재물운이 사주상 병지(病地)에 있으니 어떤 직종이든 봉급 생활을 하십시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상관견재(傷官見財) 관을 지고 재물의 탈재나 획득을 나타냄)의 성분으로 직업 변동이 많고 재물에 대한 기운이 약해 혼탁한 관재(官災, 관청으로 인한 재앙)의 화(禍)를 당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귀하의 수호신인 화기(火氣)를 꺼버리는 형국으로 물의 기운인 신장 계통 건강까지 조심해야 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물과 관련된 일은 기피해야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월11일(음 1월 12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명분보다 실리 택하라. 60년생 변수 많으니 포기는 이르다. 72년생 올 것이 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 84년생 기분 좋은 제안받고 즐거운 고민에 빠진다.

소 49년생 집안의 애구루가 관한다. 61년생 실현 가능성 없는 꿈은 버리라. 73년생 어울한 정 고치고 재도전하면 웃는다. 85년생 말을 쏟아냈지만 실천이 문제다.

호랑이 50년생 추진 중인 계획은 진짜 좋다. 62년생 새 일에 즐거워 부리울 게 있다. 74년생 주어진 일에만 최선 다할 것. 86년생 재물로 인한 흠쫄은 관재로 이어진다.

토끼 51년생 예상치 못한 곳은 생긴다. 63년생 하늘은 밝고 달이 휘영청 밝은 형국. 75년생 순리 따르면 대길한 일이 터진다. 87년생 생각지도 못한 고민에 빠진다.

용 52년생 세 얻은 튼튼한 질주 예상. 64년생 군침 도는 일감 발견한다. 76년생 상사와 부하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에서 탈출. 88년생 마음 흔드는 이성과 만난다.

뱀 53년생 유직이지만 소득은 별로다. 65년생 개인보다 조직의 힘을 모아라. 77년생 스카우트 제안받고 고민한다. 89년생 집도끼를 잘 지키고 본분에 충실하라.

말 42년생 의욕만 앞세우지 마라. 54년생 소통의 열쇠를 상대방에게서 찾으면 힘이 든다. 66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78년생 겉으론 웃지만 주름살 깊어진다.

양 43년생 측근의 배신에 허망하다. 55년생 잘나갈 때 몰리 숨어있는 복병을 조심하라. 67년생 먹구름 걷힐 조짐이 보인다. 79년생 오래된 소원을 이뤄 뿌듯하다.

원숭이 44년생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청춘. 56년생 좋게 생각하면 결과 좋아진다. 68년생 가족 간 엉뚱한 충돌로 다툼. 80년생 월정력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닭 45년생 자녀에게서 기분 좋은 소식 듣게 된다. 57년생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편안. 69년생 갑자기 축하받을 일 생긴다. 81년생 안팎으로 일이 잘 풀린다.

개 46년생 고목에 꽃이 활짝 핀 격. 58년생 생각지 못한 귀인이 찾아온다. 70년생 운세기 흐름이 순조롭고 무난한 하루. 82년생 두 갈래 길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다.

돼지 47년생 잠거리 와플할 일 생긴다. 59년생 와플할 때 문단속에 신경 써라. 71년생 마음먹은 일은 진행해도 무방하다. 83년생 부모에게 자랑할 만한 일 생긴다.

metrosochi

스치 이모저모

그라프 노출 세리머니 할 뻔

○ 러시아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율가 그라프(사진)가 노출 세리머니를 펼칠 뻔했다.

그라프는 9일 열린 2014 소치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3000m에서 동메달을 딴 후 큰 팬들의 열렬한 환호에 화답하며 유니폼의 지퍼를 내렸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듯 배꼽 부위까지 지퍼를 내렸던 그는 순간 깜짝 놀라며 다시 지퍼를 올렸다. 속옷 상의를 입지 않았던 걸 깜빡한 것이다. 이 모습은 TV를 통해 그대로 중계됐다.

그라프는 "속옷을 입지 않은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 장면이 선 세계 유튜브를 통해 퍼지겠지만 크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스노보드 결승서 코치 드개질

○ 첫 메달이 나온 9일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경기 중 흥미로운 모습이 등장했다.

이번 대회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된 '슬로프스타일'은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며 도약대와 장애물을 이용해 다양한 묘기를 연출하는 '스릴만점' 익스트림 스포츠다.

실수 한번에 메달은 물론 부상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기지만 2013년 세계빙상연맹(FIS) 세계선수권 1위 핀란드 에이스 루프 톤테리의 스타트 직선 코치인 안티 코스키넨이 유유자적 바지런히 손을 놀리며 크림식 탑실로 목도리를 짜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클로즈업됐다.

하지만 이 모습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어른 선수'들을 위한 대형 스카프 프로젝트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별 메달 순위 <11일 1시30분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네덜란드	3	2	2
2	캐나다	2	2	1
3	노르웨이	2	1	4
4	미국	2	0	3
5	독일	2	0	0
6	러시아	1	2	2
7	오스트리아	1	2	0

건재함 알린 '쇼트트랙의 황제'

sochi.ru 2014

빅토르 안 1500m 동메달 획득 주종목 500m·1000m 금 기대 한국 남자쇼트는 노메달 그쳐

조국을 떠나야 했던 비운의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8년 만에 올림픽 시상대에 올랐다.

안현수는 10일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15초062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0년대 중반 쇼트트랙 전 종목을 제패한 최강자였지만 이번 메달은 안현수에게 금메달 이상의 의미를 줬다.

개막 전부터 러시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안현수는 한국 팬들과 언론에도 관심의 중심에 서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이번 올림픽에 나섰다. 체력 문제로 개인전 중 가장 약한 종목으로 꼽힌 1500m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황제'의 건재함을 알리는 동시에 남은 500m와 1000m 등에서 금메달 획득 가능성을 높였다.

2009년 무릎이 깨지는 부상으로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를 맞았던 선수가 시련을 딛고 일어섰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물론 해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로 귀화한 후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온 안현수는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오늘의 동메달이 특별하게 다가온다. 러시아에 첫 쇼트트랙 메달을 선사했다는 것도 특별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10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안현수가 플라워세리머니에서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안현수는 러시아 대표팀으로 한국 선수들과 경쟁한 것에 대해 "선수가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에 있을 때도 한국 선수이면서 경쟁하고 실력이 좋아졌다"며 "불편한 점은 없는데 언론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최근 집중적인 관심을 모은 여자친구 우나리씨와의 관계와 결혼 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개인적인 부분은 올림픽이 끝난 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이 종목에 3명이 출전했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준결승에서 넘어졌지만 어드밴스를 얻어 가까스로 결승에 오른 이한빈(26·성남시청)은 2분16초466의 기록으로 7명 중 6위에 그쳤다. 신다운(21·서울시청)과 박세영(21·단국대)은 결승에도 오르지 못했다.

금메달은 2분14초985를 기록한 캐나다의 샤를 아믈랭에게 돌아갔고, 은메달은 중국의 한톈위(2분15초055)가 차지했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모태범이 10일 오후(현지시각)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트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후 아쉬워 하고 있다. /뉴시스

괜찮아 1000m 있잖아

모태범 500m 아쉬운 4위…'6연속 올림픽' 이규혁 18위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의 간판 모태범(25·대한항공)이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모태범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69초69로 4위에 그쳤다. 4년 전 밴쿠버 대회에서 이 부문 금메달을 땄던 모태범은 2연패를 노렸지만 메달도 건지지 못했다.

1차 레이스에서 1위 얀 스메이컨스(네덜란드·34초59)보다 0.25초 뒤진 34초84의 기록으로 4위에 오른 모태범은 2차 레이스에서 뒤집기를 노렸지만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모태범은 약점으로 지적됐던 초반 100m를 9초63으로 통과하며 후반 레이스를 기대하게 했지만 막판 스퍼트가 좋지 못했다.

미헐 뮐더르(69초31), 얀 스메이컨스(69초32), 로날트 뮐더(69초46) 등 네덜란드 선수들이 금·은·동메달을 휩쓸었다. /유순호기자

심석희 다관왕 향해 출발

가볍게 3000m 계주 결승행

한국 쇼트트랙의 신성 심석희(17·세화여고·사진)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다관왕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심석희는 10일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500m 예선에서 8조에 출전해 여유 있게 경기를 펼치며 44초197로 캐나다의 발레리 말타이스(44초039)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각조 1·2위가 진출한 준준결승과 준결승 결승은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그는 또 3000m 계주에도 출전해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다.

준결승 1조에서 캐나다·러시아·헝가리와 함께 레이스를 펼친 한국은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며 4분8초052로 1위를 차지했다. /유순호기자

"金 이변 없다"…이상화, 이상화를 넘어라

오늘밤 500m 출전
사실상 적수가 없어
기록에 더 관심집중
"평정심 갖고 임할것"

빙속 여제 이상화(왼쪽)가 10일 오전(현지시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500m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빙속 여제 이상화(25 서울시청)의 금빛 질주가 시작된다

이상화는 11일 오후 9시45분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1·2차전 레이스에 출전한다.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 도전이다.

사실상 적수가 없는 '금메달 0순위'로 꼽히는 이상화는 예니 볼프(독일) 왕베이싱(중국) 올가 팟쿨리나(러시아) 헤더 리처드슨(미국) 등 다른 선수와의 경쟁보다는 기록에 더 관심이 쏠린다.

이상화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1·2차 레이스 합계 76초09의 기록으로 2위 볼프(76초14)와의 단 0.05초 앞서며 아슬아슬하게 우승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4년 전보다 더 좋은 기록으로 더 큰 차이를 내며 2연패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열리는 아들레르 아레나는 예조 밴쿠버의 올림픽 오벌과 비슷한 빙질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대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라이벌로 불리는 중국의 위징(29)이 부상으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에 '기록제조기' 이상화 선수가 또 다른 기록을 만들어낼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화는 휘경여고 1학년생이던 2005년 38초 후반대에 머물던 한국 신기록을 38초17까지 앞당기더니 단거리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는 최초로 36초90의 벽을 깼다.

'빙속 여제'의 등장 이전까지 36초대에 머물러 있던 여자 500m 세계기록은 어느새 36초36까지 단축됐다. 이상화는 지난해 4차례나 세계기록을 갈아치우며 세계 빙상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상화는 "이번 올림픽에서는 기록보다는 순위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 평정심을 갖고 하던 대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화는 보니 블레어(50·미국) 카트리나 르메이돈(44·캐나다)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올림픽 여자 500m 2연패라는 새 역사에 도전한다. /정성훈기자 ysw@metroseoul.co.kr

'피겨 신성' 리프니츠카야 경계령

러시아 단체전 금메달 주역 · 연아 맞수 떠올라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피겨 여자 싱글에서 러시아의 요정 '율리아 리프니츠카야(16)'가 '피겨 여왕' 김연아의 강력한 맞수로 떠올랐다

리프니츠카야는 10일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피겨 단체전 결과 러시아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이날 기술점수(TES) 71.69점, 예술점수(PCS) 69.82점을 받아 141.51점으로 1위에 올랐다.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결과를 더하면 총점 214.41점을 받아 러시아 대표팀이 금메달을 받는 데 결정적인 활약을 했다. 특히 1936년 이후 최연소 올림픽 챔피언이 됐다.

경기 뒤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24·일본)의 양강 체제로 예상됐던 여자 피겨 싱글은 김연아와 리프니츠카야의 경쟁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외국 주요 매체에서도 우승 전망에서도 리프니츠카야가 1위였던 김연아를 앞서거나 격차를 대폭 줄였다. /박은희기자 lek0427@

10일 오전(한국시간) 소치 해안 클러스터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클러스에서 열린 여자 피겨 프리 프로그램 단체전에서 러시아 율리아 리프니츠카야가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소치 하이라이트 (11일 한국 주요 경기 한국시간)

종목	세부 종목	경기 시작	한국 선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21시 45분	이상화 이보라 김현영 박승주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15시	김호준 이광기
컬링	여자 예선	14시(일본전) 24시(스위스전)	신미성·김지선·이슬비·김은지·엄민지
루지	여자 1인승	23시 30분	성은령

살 빠진 류현진 스프링캠프 시작

10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카멜백 랜치에서 열린 LA 다저스 스프링캠프 첫날 투수 캠프 안면오른쪽)이 홈 개를 사이 한결 날씬해진 류현진의 팔을 만지보며 호기심을 나타내고 있다 /AP 연합뉴스

프로농구 전적 (10일)

하나외환	12	9	17	13	51
신한은행	13	20	15	18	72